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米輸送界紛糾

割戾制度를撤廢하라

一

朝鮮米는 年年 八九百萬石이란 多量의 移出이 되는터이며 또는 거의 그 全部가 日本內地로 가는것이만큼 自然 海路를 經由케된다 그래서 이 移出하는 朝鮮米의 輸送에 잇서는 汽船會社의 손을 빌게되고 一面으로 朝鮮各港에 航路를가지고 잇는 汽船會社도 移出貿易에 그 首位에 잇는 朝鮮米의 輸送을 重要視하여 오는것은 必然한勢이다 이러한 關係를 맷고 잇는 朝鮮米 輸送界가 큰異常을 보게되고 딸어서 그紛糾가 絶頂에 이르러 將次 어떠한 歸決을 告케될는지 모르는混亂한 狀態에 빠저잇다。即 從來 朝鮮米 輸送을 獨占하여오든 所謂 鮮航同盟會의 汽船會社와 米穀商間의 抗爭 또한便으로 非加盟汽船會社의 侵入的活躍等의 紛糾問題가 얼크러저 容易히 解決될 可望이 잇서보히지안는다 더구나 압흐로 三四個月밧게 안남은 新穀期가 하로하로 接近하여오는 이때에잇서 朝鮮米輸送界의 混亂은 朝鮮米에 重大한 影響을 밋치게 될것이라고하야 總督府當局은 이에對한 調停의 意向이 움직이기 비롯한 모양이라고 傳한다 이로 보아서 그歸趨如何에 對하야 關心을 안가질수가 업다

二

오늘에잇서 朝鮮米輸送問題의 紛糾가 무슨까닭으로 생겻는가함이 먼저 밝히지안흘수업는 點이다 元來 朝鮮米를 海路로 輸送함에잇서서 米穀商의 代辯機關인 그聯合會와 汽船會社로 組織된 鮮航同盟會間에는 朝鮮米輸送은 同盟의汽船이 아니면 積載치안는다는 條件 即 朝鮮米輸送은 同盟의 汽船이 獨占키로하고 그代償으로 同盟會에서는 穀商側에 所謂割戾金이란 特典을 베풀기로 한것이 그始初이다 이처럼 互相間 利得의 條件아래 朝鮮米 輸送은 同盟의 汽船이 獨占的 積載를 하여오든것이 이번에 破綻을 왜 보게되엇는가 하면 이곳에는 大體로 두가지의 理由가 잇다 即 첫재로 近年에 이르러 割戾金에 對하야 日本內地의 受荷主側에서도 朝鮮의 出荷主인 穀商과 가튼 高率의 割戾金을 달라고 强迫하엿다 이에對하야 同盟會는 現在以上의 割戾金을 낼수업고 될수잇스면 朝鮮出荷主의 割戾金中에서 얼마큼 떼여보내자는 主張을 하게되고 이에對하야 朝鮮側은 不應케되는點이며 둘재로는 同盟會는 獨占的 積載인만큼 運賃을 高率로 매어노는데 對한 不滿이 생긴點이다。그래서 今春의 運賃改正期에 何等協定을 못보고 結局 兩方의 對峙가 되고말엇다 이機會를 타서 同盟會에 參加치안흔 汽船會社가 同盟會보다 顯著한 低賃으로 朝鮮米積載에 힘을 쓰게되야 더욱 兩者對立의 激化를 促成하고 잇는것이다

三

그런데 朝鮮米 輸送에잇서 同盟會의 獨占的 積載로한 條件의 代價인 割戾金에 對하야 一考치 안흘수업다。即 이것을 엿보면 汽船會社가 運賃中에서 얼마를 내여놋는것 가트나 實은 적어도 그만한 利益打算에 依하야 그運賃을 加重케한것으로 結局 이것은米生産者를 搾取하는것이 되고말며 이割戾金은 一割以上으로 그와가튼 前例가 업는 高率이라고한다。그럼으로 米輸送은 朝鮮內農民을 間接的搾取하는 不當利得을 오래동안 享受하여왓든것이 이번에 利害爭奪로서 如實히 露出되엿다고 말할수잇다 다시 以上을 要約하여말하면 朝鮮米輸送이 獨占的이되어온만큼 鮮航의 運賃高率이란 積弊가 생기고 또 한便으로는 穀商은 不當利得을 하여온데문으로 이에對하야 엿보는사람이 생기게된것도 必然의 理致이다

四

이와가튼 一割以上의 高率割戾에 對하야 當局도 그不合理한것을 是認하는바이다 그러나 오늘까지의 消息으로는 當局이 이不合理를 바로잡으라는 意圖가 아즉도안보히는것은 到底히 理解키 어렵다 農家經濟 疲弊의 打開를 힘써오는 이때에잇서 間接的이라고 하지만 一割以上의 搾取的 不當利得에 對하야 是正의 意思가 업다는것은不可타고 안할수업다 그럼으로 將次 米 輸送問題의 調停에 當局이 出馬키로된다면 이機會에 生産者 搾取의 割戾制度를 斷然廢止하고 相當한 低賃으로써 朝鮮米 輸送을 圓滑케함이 機宜한 態度가 되지안흘가 한다

英比率主義抛棄코 米太平洋防備制限撤廢?

日本은 結局 新協定提議를 再考慮

倫敦方面消息通觀測

【電通倫敦廿四日發】米國政府가 華盛頓條約滿了後 太平洋諸島의 防備强化를 行할 案을研究하고 잇다는 情報는 英國이 比率主義를 抛棄한結果 米國은 太平洋防備制限을 撤廢하는 措擧를 取하리라고 當地에서는 센세숀을 惹起하고잇는데 消息通側에서는 右條約廢棄計에對하야 英國은 反對치안흐리라고 豫想하고 또 日本도 이미 同條約廢棄通告를 行한以上 正式抗議는 行할수업는 立場에잇다고信한다 그리고 米國側에서는 日本은 九國條約을 事實上破棄하엿슴으로 米國의 太平洋防備强化의 徹底로 太平洋問題는 日本海軍의 殿爭이 尖銳化하고잇스며 英國의 米國支持 政策에 依하야 日本의 立場은 顯著히 不利하게되엿는데 日本은結局英米 提携에 脅威되여 華府條約 滿了前에海軍에 關한 新協定의 提議를 再考慮하지 안흘수업게 되리라고 觀測된다

聯盟의紛爭處理 根本方針決定

【巴里廿四日發聯合】아브놀事務總長은 廿四日 라발首相을 訪問하고 長時間에 亘하야 무삼 協議를 遂하엿다 協議內容은 極秘에 附하나 和協委員會의 所謂第五委員會를 任命할 期限도 마친내 明廿五日에 完了하게된 事實에 徵하야 會談內容은 極히重要視되여잇는바 伊太利、에디오피아兩國의 紛爭處理에 關한 聯盟의 根本的方針을 決定한것이라고 解釋된다 決定內容도 聞知할길이업스나 佛國政府에 잇서서는 理事會에잇서서 紛爭의全面的審理는 聯盟을 破局的窮地에 陷케할것을 極度로 警戒하고잇슴으로 理事會에잇서서 審議를 可及的 國境事件에만 끈치게할 方針이라고 解釋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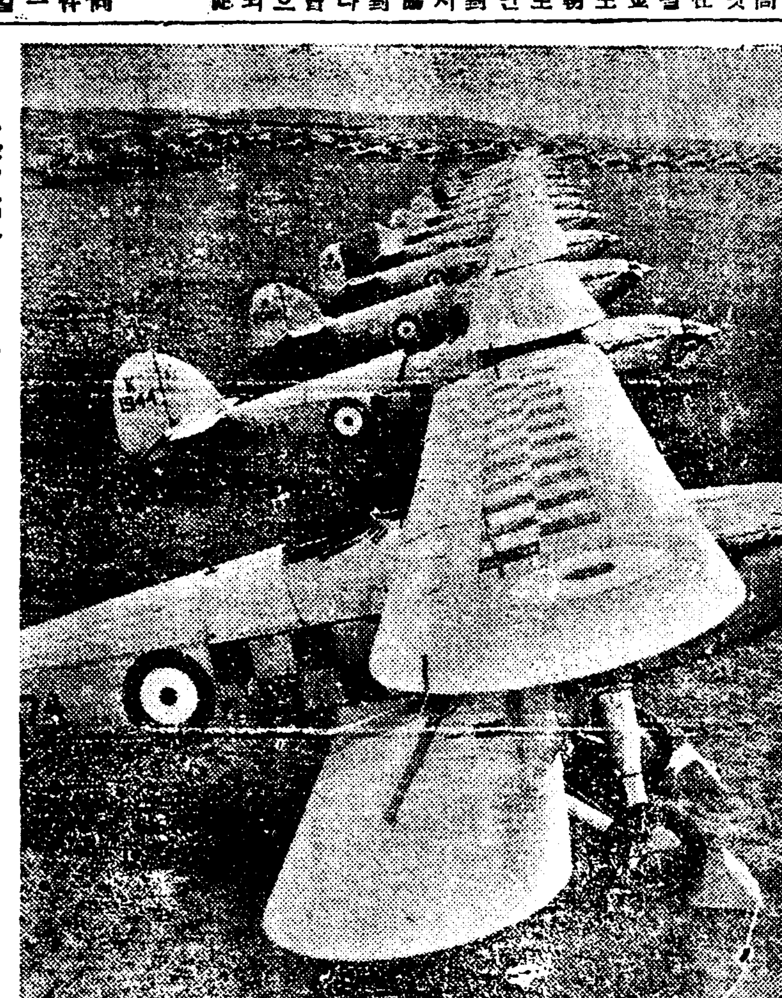
和協委員會再開 聯盟處斷期遷延

理事會에對한佛態度

【電通巴里二十四日發】聯盟事務總長 알블氏는 二十四日 라발佛首相에게 對하야『理事會가한번 伊에兩國의 和協委員會의失敗를 認定하면 理事會는 五月二十五日의 決議에基하야 八月末에 召集될 理事會에압서 全問題檢討의 責任을 負하게되다』는言을 說明한結果 佛國政府는 今回의 理事會에서는 單純한形式的의것이 되게하야 伊에兩國에 對하야 和協委員會 再開를 要求하야 問題를 委員會의 손에 옴겨서 聯盟의 進出할 時期를 될수잇는대로 遷延케하려고하는 模樣이다 따라서 佛國政府는이 方針下에 理事會開會前에 外交機關을 通하야內面工作을 進行할것으로 보인다 伊太利는 一、伊我委員을 任命치 안흘것 二、和協委員會는 國境問題를 討議치 안흘것의 二條件이 容認된다면 이것을 受諾할것으로 信憑된다 그리고 萬若 如斯한 應急策、一時的彌縫策이 失敗에 歸하면 聯盟規約 第十五條의 適用이되어 그結果에따라 伊太利의 聯盟脫退는 不可避라고 觀測되므로 佛國을 中心으로한 今後數日間의 外交交涉이야말로 注目할만한다

에國의抗議에 伊太利逆襲

【아디스아베바二十四日發聯合】和協委員會의 決裂과함께 에디오피아政府는 嚴重抗議를 提出하고 伊太利政府의 不誠意를 難詰하고잇는데 伊太利公使 규릿치伯은 二十四日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에디오피아政府에 抗議를 提出하고 和協委員會決裂의 責任은 專혀 에디오피아政府에 잇다는 旨를强調하얏다



英空軍의威勢 英王의 銀婚을 慶賀하는 意味로 七月六日밀든홀 飛行場에는 整備된三百六十五臺의 新銳機가 國王의 觀閱을기다리고잇는 光景이다

一事一言

世界劇開幕前

長白山人

只今은 正히 新聞의 外報面을 精讀할 時期다。내 歷史의 過程을 찾기 爲하여서나 또는 人類行動에 對한 無邪한 興味를 爲하야서나 只今은 正히 新聞의 外報面을 耽讀할 時代다。獨伊가 어쩌니 英佛이 어쩌니 하는 問題가 아니라 今日의 國際情勢는 正히 全人類의 今後의 動向을 占칠 모든 前兆들이다。國際條約 廢棄가 一大流行이 되어서 한 두개 一方的 廢棄를 보내지안코는 强行動을 하지못하는 今日인 反面에는 猛烈한 愛國心의 鼓吹와 주머니끗의 膨脹으로 저마다 天下에 唯一한 正義國으로서 天下의 모든 不良한 侵略國에 對하는 態度를 가진 무엇을 말하는가。國際聯盟과 仲裁裁判으로 象徵되어진 國際主義는 적어도 當分間은 옷어버린 歷史的遺物이 되고 오늘은 바야흐로 國家主義——이말이 不適當하거든 國民主義時代다。大戰後 一時 國際主義가 世界政治家의 입버릇이되도 잇섯지마는 一三年來로는 世界에는 새로운 세리멘트가 생겻스니 그것은 愛國心이란것이다。오늘날에는 愛國心 이란것이 唯一한 最高道德이어서 政治나 新聞이나 演說이나 文學이나 모도 愛國心과 愛國的美辭를 섬기게되엇다。愛國心이 이처럼 全世界諸國民에게 普遍化하기는 아마 이 地球生成以來에 처음일것이다。이것의 空前한 結果가 무엇일가。

人事現象도 어떤 意味에서는 自然現象이어서 自然界에서 보는 水旱風災와 가튼 不必要한 必然이 人事現象에도 오는것이니 二十年前의 世界大戰도 그不必要한 必然現象中에 하나이엇섯다。이 空前한 愛國心의 氾濫과 軍備의 擴張에서 不必要한 必然이 空前한 大破滅을 招來할것도 豫想하기 簡單하게 넘것 갓다。

國民單位의 經濟的、軍事的 角逐——이 活劇이 열리랑으로 舞臺뒤미는 망치소리가 騷亂한 이 때에 우리는 막열리기를 기다리는 觀客모양으로 하펌을 씹어가면서 新聞의 外報面을 耽讀할 時期에 잇다。

觀컨대 이 空前한 大低氣壓이 아모조록 順坦히 지나가소서、하고 祈禱하는것은 人類의 正當한 情일것이다。

審議會의手續上 根本的誤謬暴露

官僚閣僚의豫期한바와相反

內審前途에一抹暗影

【東電話聯合】內務省은 近近省議를 거처 懸案인 地方財政調整交付金案에 伴하는 豫算을獨自的立場에서 明年度에 計上하려는 態度를 決定한데서 發端되여 各省對內審의 關係에 對하야 高橋藏相의 見解와 後藤內相을 爲하야 政府部內의 見解가 相反되는것이 發見되게되엿는데 이結果 內閣審議會의 審議手續에 根本的 誤謬가 暴露되게된것은 極히 注目할만하다 即內閣審議會의 使命은 綜合的國策樹立에 關하야 總理大臣의 諮問에 應한다는 漠然한 것임으로 實際의 運用에 當하여는 各省의 重要政策은 반드시 內審의 審議에 附議할것이나 各省의重要政策은 爲先各省獨自의 立場에서 豫算을 計上하드라도 關係업슬가 하는等의 重要問題에 對하야 明確한 決定이 업스며 閣議에서는 單純히 內審이 答申하리라고 豫想되는 同性質의 問題라도 各省에서 依然別個의 豫算으로 計上하여도 關係업다고 諒解되고 잇슴으로 內務省의 地方財政 調整交付金案의 提出에 對하야 高橋藏相이 反對하고 또 高橋藏相의 態度에對하야 後藤內相 吉田調査局長官이 諒解치못하게되엿슴으로 結局內審은 政府內官僚系가 豫期하든 바와 反對方向으로 나아가게되여 內審의 前途에 一抹의 暗影을 던지고잇다

光學兵器實驗部

橫須賀工廠에新設

【電通東京電話】非常時 國防의 完璧을 期하고잇는 海軍에서는 來八月一日부터 橫須賀工廠에 光學兵器實驗部를 新設하는 同時에 吳海軍工廠의 砲熕部로부터 火工部를 獨立擴大하기로 되여 二十五日閣議에 海軍工廠條令改正의件을 附議하고 大角海相으로부터 說明 異議업시 可決되엿슴으로 兩三日中에 大角海相은 葉山御用邸에 伺候 上奏御裁可를 仰하야 實施하기로 되엿다

滿洲國江防艦을 蘇聯側또侮辱!

軍政部에서嚴重抗議

【電通哈爾賓廿五日發】滿蘇國境에잇서 最近不法事件을 頻發케하는 蘇聯의 奇怪한態度에 日滿當局은 疑惑을 深하고 잇는 此際 去 七月十七日 午前七時 滿洲國 江防艦隊養民號가 烏蘇里江과 黑龍江의 合流地點에잇는 三角地帶의 水道를 通行中 急激한 減水로 第四航路標識附近에서 坐洲되엿슴으로 附近을 警備하고잇든 砲艦利濟號에 救援을 命하야 離洲作業中 突然 蘇聯砲艦이 接近하야 養民號를 撮影한後 數回에 亘하야 往復하면서 作業現場을通行妨害하고 滿洲國國領인 南洞砂上에 게·베·우 三名이 上陸하야 作業을 中止하라는 態度를 보히나 言語가 不通하는 關係로 撤退하엿는바 養民號에 對하야 機關銃을 겨누는等 暴虐한 態度를 取하야 滿洲國을 侮辱한 事件에 對하야 軍政部當局은 크게 憤慨하야 今日 左와如한 嚴重抗議를 發하엿다

元來船艦이 坐洲하엿슬時에는 國籍의 如何를 不問하고 援助하는것이 國際慣例인데 이를無視하엿슬뿐만아니라 도리혀 暴虐한 行動을 敢行한것은 言語同斷이다 이것은 斷然默過할수업고 더욱 水道南側에 게·베·우가上陸한것은 滿洲國 領土侵犯임으로 嚴重抗議한다

反日데모

紐育極左分子 大部分은共産黨員

【電通紐育二十四日發】二十四日 紐育 日本總領事館前에서 極左分子들이合한 約三百人의 群衆이『日本의 帝國主義政策 反對』『日本은 滿洲로부터 손을떼라』는等의示威를 하면서 大데모를 行하엿다 群衆의大部分은 共産黨員으로 獨立共産黨 聯盟과 戰爭反對聯盟의 會員이라고한다 右데모는 秩序整然하게擧行되여 暴行者는업섯다 그리고 代表者는 澤田總領事에게 面會를 求하엿는데 不在이엿슴으로 그대로歸散하엿다

夕刊後市況 廿五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八三二〇	(二〇低)
鐘新	二一八〇	(四〇低)
日產	六八八〇	(二〇低)
東新	一三七五〇	(五〇高)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六九八〇〇 先限 六二〇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四八〇 先限 五六三〇

中央執監全體會議 九月末南京에召集

國民代表大會期日、對日根本方針等

國府의重大問題討議

【電通南京廿五日發】今日의 國民黨 中央常務會議에 잇서서 第六次中央執監全體會議를 今秋九月下旬 南京에 召集할 件을 正式決定하엿다 第六次全體會議는 昨年에 開催할 豫定을 今年으로 延期한것인데 憲法案을 決定할 國民代表大會의 期日과 方法 對日根本方針 其他의 對外重要問題를 討議할터인데 親日派 歐米派 其他各派는 이미그 準備工作을 進行하고 잇는바 夏休가 끗나는대로 南京政局은 重大局面을 呈하게될것이다

衛生課長會議

道衛生課長會議는 二十四日午前八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開會하고 池田警務局長의 訓示가잇슨後 協議事項에 入하엿는데 今回의 會議에서는 豫防第二期計劃、肺結核豫防對策의 協議를 行할것으로 二十六日까지 三日間 續行될터이다

鮮航同盟

事實上解散

【大阪電話聯合】鮮航同盟은 二十四、五兩日에 亘하야 評議員會를 開催하고 尼崎汽船脫退通告로 崩壞하게되든 同盟今後의對策에 對하야 極秘裡에 協議한結果 現狀대로는 盟外船에 對抗할名案이 업슴으로 마침내 來八月一日부터 同盟의 存在만을 남기고 實質上解散하야 徹底的自由競爭에 맛기기로 意見一致되여 直時總會를 開하고 右件을 可決하는 同時에 大要 左와如한 聲明書를 發表하엿다 이結果 昭和五年十一月以來의 朝鮮米積取統制는 드듸여 崩壞되여 當分間은 自由競爭의 暗黑時代를 演出하리라고 觀測되는데 其間에잇서 唯一한 希望한 總督府의 調停에 달녀잇다 鮮航同盟은 八月一日以降 共同計算制度를 中止하고 會社獨自의 立場에서 自由配船積取를 行할터이다

英勞働黨系諸大會서 파시즘打倒決議

에디오피아國에同情

【倫敦二十四日發聯合】왈왈事件發生以來 英國의 輿論은 翕然히 에디오피아帝國에 同情하고 뭇솔리니首相의 强硬政策을 非難하고잇는데 勞働黨議員國同執行委員會 全國勞働評議會와 勞働組合總同盟은 二十四日 聯合大會를 擧行하고 席上에서 파시즘打倒決議를 採決하엿다

海軍大演習反對 決議案可決

米長老敎會大會에서

【電通桑港廿四日發】칼리포니아 네바다 兩州의 長老敎會 大會는 二十四日 排日移民法을 撤廢하고 日本人에 對하여도 配當制를 適用하는 同時에 日本의 感情을 刺戟하는 海軍大演習 反對決議案을 可決하엿다

對蘇關係其他로 日中提携를主唱

北中新政權最高首腦者될風說잇는

閻錫山氏政治見解

【電通太原二十四日發】北中新政權 最高首腦者로 不遠 登場하리라고 期待되는 閻錫山氏는 이三年來 一切의 內外新聞記者와의 會見을 避하고잇슨바 北中에 展開된 新情勢와 北中及日本과의 歷史的 關係에 對하야 果然 如何한 所懷를 가지고잇는지 親히 氏의 意見을 들어보려고 平漢線으로부터 正太線(正定太原)에 乘換하야 北平에서 二日만에 太原에 到着하엿다 即時 綏靖公署로 氏를 訪問하엿든바 반가히 記者를 마저 參謀長朱綬光氏 同席下에 約一時間동안 會見하엿다 紹介의 中國服에 자못 元氣잇는얼골로 氏는 躬而極히 眞摯한 態度로 如左히對蘇關係의 見地로부터日中提携의 必至論을 强調하엿다

日中提携는 나의 年來의 主張인데 最近 特히 日本과蘇聯과의 緊迫한 情勢下에 잇서서 蘇聯의 新東方經綸策을 볼때에 一層 日中提携를 一日이라도 忽諸히 할수업다고 잇는다 即蘇聯은 現在 外蒙을 完全히 그手中에 너허 萬一의 境遇에는 庫倫及新疆省의 二途로부터 北中進出을 企圖하야 北中을 非常한 混亂에 陷케하야 日本을 側背로부터 脅威할것은 必然이다 그럼으로 日中兩國은 이때를當하야 全혀 共同의敵으로 서로 提携하야 可及的 蘇聯의 南下勢力阻止에 當하지안흐면안 될것이다 그러치안흐면 中國은 全土赤化의 恐怖에 暴하게될것이 豫想되므로 생각하매 참으로 慄然한바잇다 中國은 지금 學生의 大部分은 左傾하야 不逞한는 內亂과 土匪때문에 地方의 秩序는 紊亂하고 貿易入超로 國民經濟는 疲弊의 極에 達하고 農村은 거의破産에 瀕하야 마치 爆藥을 地中에 埋藏함과 가튼 危險狀態에 잇스므로 이때의 蘇聯의 南下는 곳 全中國의共産黨의 蜂起와 함께 中國은 오즉 赤化의 一途를 밟어 國家의 存在를 잃케될것이다 이點에서 蘇聯은 日中兩國의 共同의 敵이오 目的은 다르다 그利害는 全혀 一致되고잇다 日中兩國 當局者는 이곳에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이에 協力一致하야 共同防衛에 當하지안흐면 안되리라고 確信하고잇다

또 閻錫山氏는 話題를 돌려 北中의 日中經濟 提携問題에 對하야 日中兩國이 提携하야 北中의 産業開發에 當할것은 勿論 大賛成이나 經濟提携는 原則上兩國의 利害를 共通케 하야 日中이 함께 享受할것이라는것을 主張한다 아직 아모것도 具體化된것이 업스므로 이以上말할수업스나 나는 이原則에基한 經濟提携에 實意를表 할뿐이다 라고 言中에『日本에만 利益을 壟斷되는것을 警戒함과 如한 暗示를 보엿다 이어서 氏는 自己의 勢力圈內인 綏遠省의 排日空氣에 對하야 國民黨은 不必要한 問題를 이르킬뿐이오 何等 利益이 업다 即나는 이點에 잇서서 國民黨에 反對다 그래서 現在山西省內에는 黨部의 存在를 許諾치안는다 綏遠에 그事實이 잇스면 即時 停止시킨다 라고 排日取締의 態度를 明白히하엿다 最後로『北中 人民이 一致하야 國民黨 北中新政權首腦者에 推戴하면 出馬할 決意가 잇느냐 업느냐고 質問한데對하야 氏는 어떤 重要點의 發表를 避하면서 나는 國家及 國民을 利益되게하고 或은 地方人民의 重大한 利益이될 境遇에는 一身을 犧牲하는것도 구태여 不辭하나 나는 山西、綏遠兩省의 統治만도 如意하게안되는 現在에잇서서 到底히 膨大한 地域의 統治는困難하다 라고 表面 極히 消極的인 態度를 示하엿스나 閻錫山氏의 眞意는 南京政府와의 關係만 調停되면 언제든지 出馬하고십단 意向이다 要컨대 氏는 南京政府에 對하야 想像以上의 念慮를 하고잇는것은 明瞭히 看取되엇다 氏는 北中人民이 모든 準備를 하야 소래노피 招請할때까지 形勢를 觀望하는 態度를 繼續할것이다

躍進하는日本生命

本社는明治二十二年七月創立以來、이七月로써滿四十六年을맛는光輝잇는歷史를갓고잇슴니다。

明治三十二年、創業後十年으로서全國最大의生命保險會社로써의榮冠을獲得、爾來三十有六年、그런地位를確保하고잇슴니다!

最近에이서서全國生命保險事業의躍進的發展은、國家를爲하야 가장慶賀할바이옵니다。

本社는斯業躍進의先驅者로써本年上半期中의新契約高는벌서一億八千八百餘萬圓의巨額에達하엿고同期末總契約高는 十六億四千餘萬圓에達하엿슴니다。

本月一日부터 現行每年利益配當附保險中의 養老保險의種類를增加하여 實施하고잇슴니다。種類가 豊富하다고稱讚듯는本社의保險은 이로써 一層더利用하실範圍를 擴大하엿슴니다 누구시든지아무조록研究하여보십옵소서。

(營業案內贈呈)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大阪市東區今橋四丁目

北滿蘿北縣의 士兵 住民四十八名慘殺

六十名이掠奪暴行後逃走

朝鮮人被害十五名

【電通哈爾賓廿五日發】 지난 십팔일 룡강성 라북현 대월(龍江省蘿北縣大越)에 두병단 륙십명이 래습하야 략탈과 가진 폭행을 다한후 조선인 열다섯명과 만주국인 삼십삼명을 참살하고 도망하여다

監獄을破壞하고 四人五十名解放

日滿兩軍警은急遽히出動

奈曼旗公署事件後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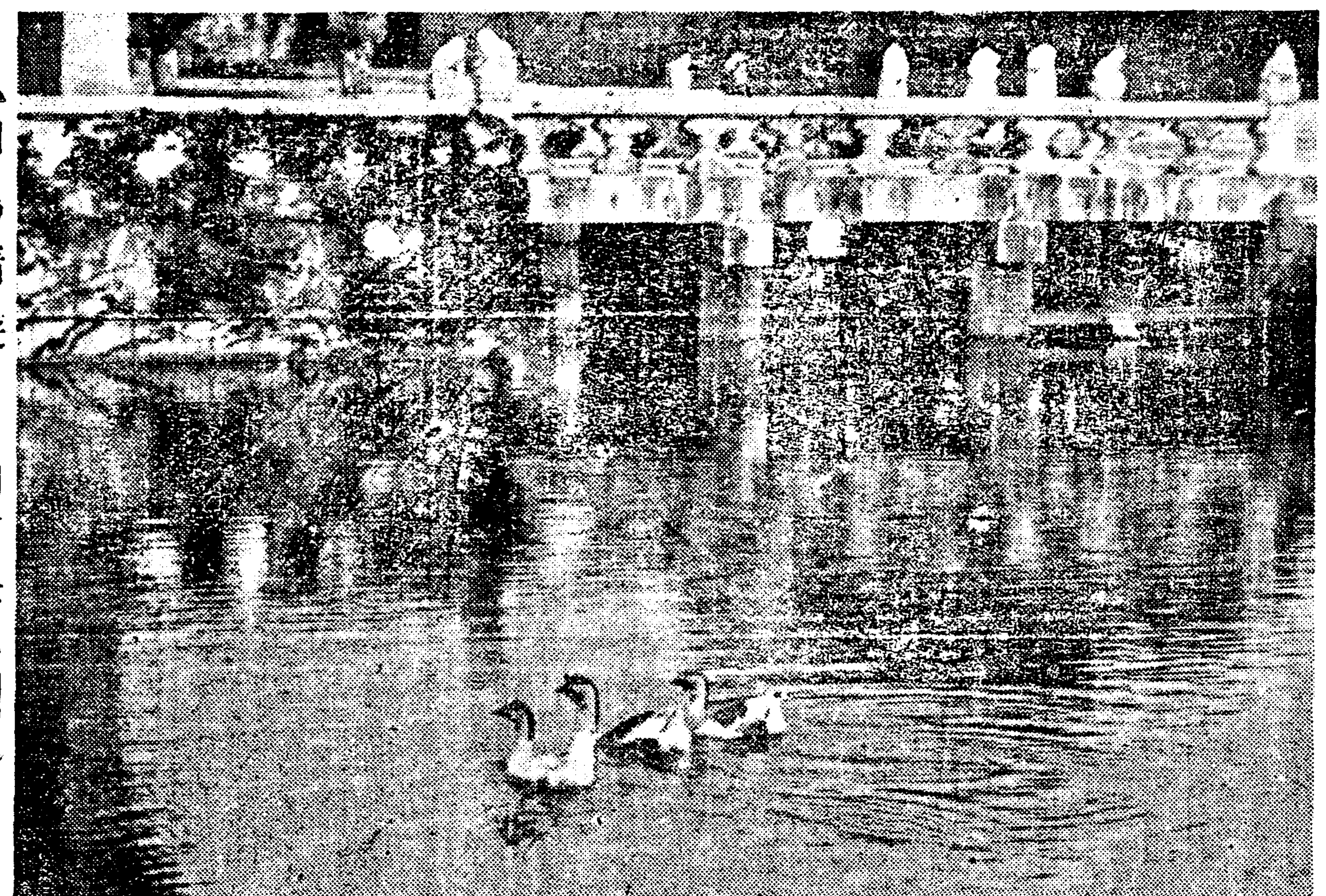
【電通新京廿五日發】 나만기공서(奈曼旗公署)전멸의 보고를바든 일만관계기관은 사건을 중대시하고 위선○○방면의 흥안남성(興安南省)경비군에 출동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공주령(公主嶺)○○대로부터 ○○기를 출동식혓다 일방 나만기에서는 기내의 자위단을 소집하야 ○○부대 및 ○○부대와 협력하야 기공서의 탈환을 힘쓰는중이다 그리고 금번 습격에 나만기에서 조난한 일본인은 열명으로 판명되엇다 그리고 토병단은 기공서 부근 감옥을 깨트리고 죄수오십명을 해방하엿다

公署에는放火 官吏多數를慘殺

日本人側被殺者不少

【電通新京廿五日發】 나만기공서의 류(劉)경무과장의 탈출도중에 어든 정보에 의하면 중근(中根)순사는 공서를 빠저나와 전사를 하엿고 산수(山守)참사관 좌좌목(佐佐木)씨부터 암본지요(岩本지요)등은 살해 혹은 납치를 당햇스며 등천(滕川)경좌부처는 중국옷을 입고 탈출하다가 발견되엇는데 그뒤 오떠케 되엇는지 알수가 업다 그리고 토병단은 점령한 기공서에는 방화하야 전소식혓스나 다른곳에는 방화치 아니하엿다 그리고 지금까지 판명된 피해자 신원은 다음과갓다

▲佐佐木政太郎(三)美濃(秋田縣) ▲岩本政義(三)天覺(熊本縣) ▲中根幸一(三)(東京府) ▲滕川伊太郎(三)(福島縣) ▲木村某(專務局官吏)



△白鳥淸遊……경회루 못 가에서▽

鄭鍾鳴今朝出監

공산당 재건사건으로 룡산서에서 복역중이든 정종명(鄭鍾鳴)은 이십오일로써 만기되야 이십륙일 아츰에 출옥하리라한다

맷긴돈千圓을 먹으려든雇人

이십사일 오전 다섯시반 경에 안성군안성면동리(安城郡安城面東里) 사백구번지 김용긔(金容冀)의생질되는 김장성(金長成)(三)이가 금판돈 현금 일천사십원을 시내종로삼정목팔십삼번지 김윤희(金允熙)방의 고용인 박윤상(朴允商)(三)에게 그전자긔의 고용인이던 친분이 잇는관계로 잠간 맷겨두엇섯는데 동일오후열시반경에 그맷겻던돈을 분실하엿다고함으로 소관종로서(鍾路署)원이 출동하야 조사한 결과 전긔 박윤상이가 종로삼정목일백이십륙번지 자택에 감추어 두엇던것이 판명되여 그는 경찰서에 인치되고 마럿다

自己말에채워重傷

이십오일 오후 두시반경 시내원정(元町)사정목 길가에서는시외 리태원(梨泰院)상배십오번지 송치문(宋致文)(三)이가 룡산상 각지로부터 마차에다 석탄을실고 구룡산방면으로가다가 말이 갑작이 놀래뛰어서 그를제지한다는것이 말발길에채여 안면과 부에 중상을당하엿다 즉시룡산 철도병원에 입원식혀 응급수당을하는중이나 방금생명이 위독하다한다

奇特한無名氏

수재때에 기특한 로동자——이십사일밤 여덟시반쯤에 서대문경찰서(西大門署)창문에 나이상십이상세 가량 되여보이는 로동자 한녀이 봉투하나를 드려노코 가버렷는데 그 경찰서원이 그봉투를 집어본즉 거레는 재민구제(災民救濟)라는 글자가 쓰여잇고 봉투안에는 돈 이원이 드러잇섯다 한다 어떤 사람인지 수재민들을 생각하는 참다운 동정으로 그와가티 이름도 알리지안코 두고간 모양이라한다

漢江水位平時化

天候도繼續快晴

지리한 장마도 숨이 죽어 어제부터 명랑한 천긔를 보게되자 수량의 표준을 보임과 함께 일반부민의 피난자 초점이 되엇든 욱천(旭川)과 한강(漢江) 두곳의 수위는 이십오일 오전 여덟시에 이르러 욱천은 평상과 한강 오척여를 보이게되여 완전히 감수되엿다 평상수위로 도라가고 말엇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수위의 측정을 당감하엿다한다

麻浦電車全部開通

今日까지에

금번수해로 인하야 일부 불통이 되엇든 경전마포선(麻浦線) 전차는 이십오일 종점까지 약 이정가량만 남기고 개통이되엇는데 이십륙일중에는 완전히복구되리라한다

老人이轢死

이십사일 오전 다섯시경에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회물 제륙백이십오호렬차가 고성외금강(高城外金剛)간을 진행하든중 길목을 횡단하는 조선인로인이잇서 긔관차에 치여 중상을 입엇다가 동여덟시경에 사망하얏는데 그로인은 함흥부성천정(咸興府城川町)사십번지 최원식(崔元植)으로 판명되얏다

農村窮狀은如前 支拂命令이幅輳

晉州서半個年에一千五百餘件

打麥期엔每日數十件

【晉州】 농민의 생활피폐와 농촌경제의 불안을 타개코저 당국에서도 진력하는터이나 그일방으로 농민의생활은 어즈럽고 농촌경제는 급박하여가고 잇는것이 현저히 나타나고잇다 진주법원지청 집달리소에서취급한 금년일월일일부터 륙월말일까지 반개년간의 지불명령(支拂命令)총건수는 실로일천오백구십칠건이란 놀라운 수자에달하는바 이들채무자의 반수이상이 농민들이라하며 타맥기(打麥期)인 오월과 륙월초순까지에는채권자들이 더한층 발호하야 매일평균 수십장의 지불명령이 농촌을행하야 설비하엿다는바이로써도 농민의 생활상태가 얼마나 참혹하고 농촌경제가 얼마나 피페된것을 여실히 알수잇다

每夜出沒하는 加平의猪群

農作物被害가莫大

가평군(加平郡)에는 최근 산도야지의 래습이 빈번하야 농작물피해가 자심하므로 이십오일에 경기도보안과에 가평서로부터 이에대한 구제를 요망해온 일이잇다 즉 이지방에는 벌서 이른봄부터 산도야지가 출몰하야 농작물에 해를 입히더니 최근에는 십여마리식의 색기를거느린 산도야지 무리가 무시로 래습하야 동군 북면(北面)상면(上面) 하면(下面) 남면(南面) 군내면(郡內面)의 각면은 보리와 조와 감자농작의 피해가심하야 그곳 세농민의 생도에큰위협을 늣기게 되엿다는것이다 그래서 그곳농민들은 밤이면모닥불을 피우고 구축에 분주하고잇스나 도모지 효과가업는데 밤쯤 동군에는 엽총을 가진해수구제원(害獸驅除員)이 한명뿐이여서 가평서에서는 보안과에 향하야 적어도 전기각면에는 해수구제한명식은 허가해달라고 요청해와서 방금보안과에서는 이를고려중이라한다

米、比定期航空 今秋九月에實施

四十八時間에、料金은一千弗

將來中國까지連絡

【電通산·프란시스코廿三日發】 미국 범태평양 항공회사에서는 태평양 횡단 정기항공로 개설의 준비로 지난번 미국대륙、하와이、미드웨ー도간의 시험비행을 한바 잇섯는데 드듸어 구월부터 아라메다(칼리포니아洲) 마니라간의 정기항공을 정식개시할것을 발표하엿다 이 항공로는 장차 중국에 까지 연장할 예정인데 목하의 계획으로는 아라메다、마니라간의 료금은 일천불、비행소시간은 사십팔시간에 도중 착수지점은 호노루루、미드웨ー도、웨ー크도、괌도、부아란드 등이며 사십명이 탈수잇는 대형 사ー진비행기를 사용하는데 강력의 무전기를 비치하야 아라메다에는 근히잔코 기상을 통보하야 유유히 태평양의 상공을 날으며 려행할수가 잇게되엇다

滿洲粟의輸入額 昨年보다十倍增

今年上半期仁川港에서본統計

農村이疲弊한證據

【仁川】 풍흉을 물론하고 계손으로 지은 기름진 백미는 외지로 보내고 외지에서 염가의 갈곡을 사먹는것이 조선의현상이어서 그수입액은 점점증가하야 금년상반긔 륙월까지 인천을 경유한 만주속(滿洲粟)만이 이십이만 백륙십칠표에 일백륙십사만팔천이백 이십일원이라는데 작년동기 이만륙천백구십삼포 십삼만륙백십구원에 비하면 약십배나 되는 비참한 형편이라한다

強盜殺人犯兩人 高等法院서死刑

함북부령군 부령면고무산(富寧郡富寧面古茂山) 사는 류시화(柳始和)(三)와김명악(金明岳)(三)두명의남자는 강도살인죄로경성복심법원에서 모다사형의 판결을 밧고 불복 상고하엿든바 이십오일에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나려 결국사형으로 확정되엿다 두명은 보통학교 또는농업학교를졸업한사람들로 서당교사、훈도면서기로 다녓는데 빈궁한생활을 하는것보다 한꺼번에 거액의 돈을 획득하야 안락한생활을 하여볼 망상을 품고 서로 공모하야 그방법으로 강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재작년삼월이십구일밤중에 그곳 잡화상 전중겸길(田中兼吉)의 집에 곤봉을 들고 드러가서 전중겸길을 따려죽이고 돈 삼십구원을 강탈한것이라 한다

牡丹峯公園에 豹범이散步

어미、색기다섯놈을맛나

한놈을運轉手君生擒

【平壤】 평양모란봉공원에 맹수가나타낫다고하면 천만의말슴이라고 부인해버리고말것이다 그러나 이십삼일오전 네시경에청류정(淸流亭)배수지부근(排水池附近)에손님을 실어다주고 도라오든 부내 안전(安全)택시ー운전수 리창근(李昌根)과 김윤걸(金允杰)의량군은 도라오려는순간 광풍정(光風亭)부근 솔밧사이에서는 두줄기의 『헤드라잇』가튼광채가 빗최임으로 자동차를멈추고 나려부근을 살피어슬때에는 고양이색기가튼 동물네머리가 놀고잇섯다

두명은쫏고막고 십분간이나 소동하여 한머리를잡고 남은세머리를 잡으려는순간 조금떠러진거리에서『아ー웅』소래가나며 달녀오는 큰놈이 잇스므로 혼비백산하여 자동차에 뛰여드러『스피ー드』를내이여도망해오고말엇다 붓잡은 한머리의맹수는 읍취각(挹翠閣) 동물원에 인도하여 목하보호중인데 호랑이는안이고 표범(豹虎)의색기인것이 판명되엿다

美人計를써서 富豪子弟를誘引

토지를 저당내먹으려든 일당

龍山警察에서檢擧、不日間送局

경긔도 수원군 수원읍 신풍리(水原郡水原邑新豊里) 사백십구번지 전과오범에 윤복룡(尹福龍)이란 변명을 가진 윤긔섭(尹起燮)(三)은 자긔 이웃에사는 리석봉(李石鳳)(三)과 공모한후 수원군 반월면 건건리(半月面乾乾里) 륙백구번지 부자과부 최소사(崔召史)의 외아들한영택(韓榮澤)(三)이란 청년을 유인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대항권번기생 강산옥(姜山玉)의 집에 잡복시킨후 동인의 소유인 전기건건리 소재토지 시가 약 천원어치를 강제로 고리대금업자에게 저당시키려고 갖은 방으로운동하든것을 룡산서원이 탐문하고 일전에 전기 윤긔섭을 체포하엿는데 리석봉은 즉시 도주해 바렷다한다 그리고 그간 취조가 끗낫스므로 불일간 일건서류와함께 송국하리라한다

疑問의急死로 屍體를解剖

龍山署서調査

이십오일 오후륙시경 시외공덕리(孔德里)일백사십팔번지 전병모(全秉模)(三)는 식후에 툇마루에 걸상을노코안저 바람을쏘이든차 돌연히 미트로 떠러저 급사하엿는데 전씨는 그날오전십시경 동리동번지사는 리신영(李信永)(三)과 언쟁하다가 다소구타당한일이잇섯다는데 그것이 변사의원인이나 안인가하야 소관룡산서(龍山署)에서는 고교(高橋) 사법주임이 급히 현장에나아가 검시(檢屍)한결과 죽은 병명은 뇌일혈(腦溢血)이라하며다시금일중에시체를해부하기로하엿다한다

棧橋埋立問題로 記者團座談會

【馬山】 마산잔교매립문제는마산발전에중대한 관계를 가지고잇스니만치 마산긔자단에서는 일반부민과가티 그실시를 촉진하는동시에 그내용을 조사하든바 자난 이십이일 오후 오시경에 남선일보사(南鮮日報社)에서 긔자단(記者團) 좌담회(座談會)를 개최하고 본문제에 대하야 각자의 의사보고가잇슨후 당분간 정관하기로 되엿다한다

朝鮮少年軍 指導者研究會

조선소년군총본부(朝鮮少年軍總本部)에서는 작금와가티 제십회지도자 연구회를 개최한다는바 현재소년군에 관계자는 물론이려니와 일반사회유지로 장차소년군을 조직지도하실분도 참가하기를 바란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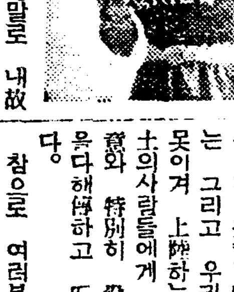
一、時日 八月三日 至同月九日 一週日間
一、場所 東小門外 三角山東麓
一、集合 八月三日 午前八時二十分 京城發八時五十五分 淸涼里驛發로 食洞驛에集合
一、參加金 二圓也 食費自擔
一、天幕等은 總本部에서設備
一、服裝、少年軍團員服 携帶品
一、寢具、毛布、洗面具、內衣一件、食器三、四個
一、開會中間 退出을不許

右責任者 趙喆鎬會長 隊長 吳鳳煥 幹事 張明浩 咸順在 權英燮

運動競技

京城에왓든 比律賓拳鬪選手『라』君의書信

六月二十四日에 全朝鮮아마튜어拳鬪聯盟主催와 本社後援으로 열리엇든 全比律賓軍對 全朝鮮軍의 空前의 國際的拳鬪戰에서 善戰憤敗하고 도라간 全比律賓軍은 海路無恙하여 七月八日에 『마닐라』에 無事到着하엿다는바 一行中의 最年少者로 그『스피릿』과테크닉이 크게 將來를矚望케하든『라라자발』君은 到着直後에 곳 第一信을 本社運動部로 보내왓다。君은 現在 마닐라極東大學에서 法律을 專攻하는터로 아래 보내온 君의書信에서 우리는 君의 朝鮮에對한 아름다운 印象을 일흘수 잇는것을 기뻐한다。



◇

拜啓 우리는 가슴에 넘치는 感激과 喜悅속에서 여름애동안을 바다에 떠서 지나고 멧칠전에 그립든 故土 比律賓의땅을 밟엇슴니다。

朝鮮의 風光이 정말로 내故土의 그것보다 멧배나더 아름다운거、』나는 보앗스나 그러나 어찌합니까 내게는 그래도 가난하고 보잘것업는 땅이나마 내 比律賓이 생각나고 생각끄테 그리워진것입니다。이제나는 사랑하는故國의 품을 밟고 새삼스러히 이런맘을 외여봄니다。내 故鄕과 가튼 곳은 세상에 다시 업느니라——는 진정으로 말하거니와 朝鮮에서지난 짧은몃칠이 내게는 이치지안는 그리고 이치우지안흘길고긴 세월이 되엿슴니다。

兄弟를 맛는듯이 朝鮮의 여러분은 우리를 마저주섯고 우리는 兄弟를떠나듯이 서운한길을떠나 왓슴니다。그리하야 나는 그리고 우리一同은 感激에 못이겨 上陸하는即時로 우리故土의사람들에게 朝鮮人士들의好意와 特別히 貴社의厚待를 말슴다해傳하고 또 자랑하엿슴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그友愛와親善의情으로 가득찬 세상이 다시 가고 십도록그립슴니다。

◇

도라온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아름다운朝鮮을 그때에 잇는 尊敬하는人士를 對하게해준 朝鮮 아마튜어 拳鬪聯盟에 感謝하고 더욱히 우리를 위해서 마음으로 物質로 더할수업는恩惠를 주신 朝鮮日報社에 우리는 感謝다못해 萬歲를부름니다

압흐로 나와 우리一同은 朝鮮의여러분을 잇지안코 자주자주 朝鮮日報를 通해 이곳比律賓 運動界의 消息을 傳하기로 거듭約束합니다。

끄트로 바라는것은 우리들을 잇지마시고 그리운 朝鮮의모든 消息을 자주 알려주십소서。

同封하는 寫眞은 내가마닐라에 도라와서 곳찍은것입니다。보시고 나를생각하시며 우리들의 이야기나 해주십소서。

七月十二日 마닐라에서

오스카·데·라라자발

(寫眞은同封해온라라자발君의近影)

全朝鮮中等校 陸上對抗

十八校가參加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二回全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對校選手權大會는 七月二十七日(午後一時)과 二十八日(零時半)의 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이에參加한 學校는 養正高普 龍中 京師 徽文高普 公州高普 鏡城農業 海州高普 大邱農林 春川農業 第一高普 第二高普 釜山中 平壤高普 京城工業 仁川商業 群山中學 大田中學 等以上十八校로서 出場選手는二百餘名에 達하야 盛況을 豫期한다고한다

京鐵道商籠球 平壤에遠征

京城鐵道商業學校籠球部는 來日 本籠球協會에 主催인 全朝鮮實業學校籠球選手權大會 中部豫選에 優勝하야 八月一·二兩日間 平壤에서 開催되는 第一回 全朝鮮實業學校籠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하기 爲하야 來三十日 午後十時五十五分車로 京城出發壯途에 오를터인데 벌서 一個月前부터 『코ー취』李惠逢氏 指導아래 猛練習을 하고잇는바 遠征軍『멤버』는 다음과갓다

▲監督渡邊英一 ▲코ー취李惠逢 ▲主將陳永得 洪鍾淯 韓龍雲 李相助 孫光善 裵炳璡 韓哲洙 柳永一

中等野球日割變更

大朝主催 中等野球大會 朝鮮中部豫選日程은 雨天으로 因하야 다음과가티 變更되엿다

▲準決勝戰=仁川商業對咸商—京師의 勝者(廿七日正午)、京商對善隣(廿七日午後三時)、▲決勝戰=廿八日午後一時

今日의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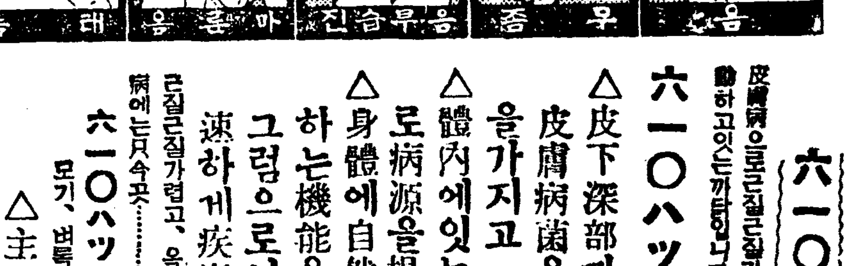
▲野球=中等野球第三日、咸興商業對京城師範戰은 午後一時부터京城球場에서

天賦의福音

皮膚病에 꼭쓰지안흐면안될

六一〇ハップ (무도ー합뿌)

皮膚病이 가장잘낫는다고 天下에名聲을밧는 六一〇ハップ는 化學의進步에依하야 完成된新藥을記錄한 專賣特許藥입니다……



六一〇ハップ의特徵

皮膚病으로곤질가렵고、알흔것은 無數한細菌이皮膚에寄生繁殖하고잇는까닭입니다。

六一〇ハップ는

△皮下深部까지잘浸透하야 痼疾인이런皮膚病菌을顯著하게殺滅식히는 作用을가지고

△體內에잇는毒素를體外로 排出식힘으로病源을根本的으로驅逐하며

△身體에自然的으로 賦與된疾病을 自癒하는機能을活潑케促進식힘니다。

그럼으로이런三大作用이相俟하야서迅速하게疾病을根治하는것입니다。

곤질곤질가렵고、욱신욱신압흐고、더러운고름이흐르는 不快한皮膚病에는只今곳……

六一〇ハップ를試用하시면直席에見効

모기、벼룩、빈대문데도即効

△主治効能

옴、무좀、음부습진、마른옴、腫氣、땀띠、其他皮膚病、痔疾、胃腸病、婦人病、神經痛、

◉洗面에二三滴쓰시면얼골의살결에 潤이나고윤채지며 ◉沐浴물에너어쓰시면 血液循環을잘하고、精神이爽快하여지고、身體도더욱튼튼케되며 ◉婦人의뒷물에도 만히使用합니다 溫泉成分을맛볼수가잇슴니다。一家用으로全家族이다

藥은各地主要한 藥房에잇스며、原液대로발고잇스니물에타서쓰십시요、說明書에 詳細히적어잇슴니다。

斯界의權威 婦人科 皮膚科 小兒科 醫學博士 川地 推奬 醫學博士 長谷川 推奬 醫學博士 額田 推奬 醫學博士 森 推奬

(藥價) 三十五錢 一圓 二圓三十錢 三圓五十錢 六圓

發賣元 名古屋 武藤鉦合名會社藥品部

國産 石油

燈油 揮發油 輕油 重油 モビール油 マシン油 ダイナモ油 タービン油 シリンダー油 スピンドル油 グリース油 車軸油 アスファルト

特約店募集

今般弊社에서 左記各郡主要地에 日本石油株式會社製品特約販賣店을 設置코저하오니 希望하시는 諸位는 來八月十五日까지 申込하심을 仰望하오며 特約條項은 照會次第로 詳細御報하겟나이다

區域 義州 龍川 鐵山 宣川 定州 龜城 朔州 昌城 碧潼 楚山 渭原 江界 厚昌 慈城

新義州府本町四番地 日本石油株式會社平北總代理店 國際商事株式會社 電話長 三二一 二二二番

失職은技術家에업다

◎本校는實地로有用한技術家를養成함目的、學力年齡을不問하고臨時로入學許可함 吾人은單히一技를배워서獨立的生活의安定을得하라

◎本科三個月卒業 ◎創立明治四十四年(就職紹介、學則送付) ◎校外課通信講義錄도發行함

◎東京品川驛前二 公認 東京寫眞學校

추탕은 兄弟酒店

京城府東大門外崇仁洞一九九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

金銀白金 高價買入

金寶堂 吳健燮

電話本局七六六七番

七月二十六日부터大公開!

◇料金 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함 낮 一時 밤 七時半 始映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大雄篇 社會劇 男便을죽이기까지 全九卷 監督…막크마！신氏作品 主演…크라세스데이뭰

◇女子가어지하야男便을죽이엿슬가 題目부터怪常한大雄篇의名畵見失치마시라

新興키네마社特作映畵現代劇 暴風警報 全七卷 監督…高見貞衛氏力作 主演…牧英·勝氏 英百合子孃

◇佛國알프렛드마싱社作品 動物의王國 監督알프렛도마싱氏

麻浦桃花洞 電話 一三八 桃花劇場

釜山府多年懸案 上水道排水管增設
松島海水浴場、牧島埋築等地에 總工費八萬圓으로

【釜山】부산부에서는 다년 현안으로 나려오던 송도(松島)해수욕장지대급 요지옹매립(埋立)을 압로한 남항매축지와 목도매축지일부에 상수도배수관 증설공사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공비 팔만사천원을 수도비특별회계예산에 계상하야 그중칠만일천원은 긔채로써하고 남어지일만삼천원은 민간긔부금 부비로써 하기로 결정하야 지난 봄부터 총독부에 실시계획급 긔채인가를 신청중이엿는데 지난 이십일부로 정식으로 인가되여 부당국에서는 곳공사에 착수하야 십일월말까지에 공사를 완성시킬 예정이라한다

銀塊竊盜犯에 一年半役求刑

【平壤】철도국에 근무하면서 수송의 은괴(銀塊)를 절취하엿든 원평양검차구(檢車區) 신의주근무고원지전선시(池田仙市)(二三)의 편한 절도사건의 공판은 이십사일오후령시십분부터 평양지방법원에서 서전(西田)판사 주심 암성(岩城)검사립회로 개정되어 심문이 끗난다음 암성검사로부터 징역일년반을 구형이잇섯는데 판결언도는 오는 이십칠일이라한다

本社白川支局主催 納涼音樂大會
來三十一日公普校서

【白川】본보백천지국에서는 금번 평북선천신성중학교음악부(信聖中學校音樂部)의 하기순회를 긔회로 오는삼십일일 오후팔시반부터 납량음악대회(納凉音樂大會)를 백천공보교구내에서 개최하기로되여 만반준비중이라는데 금번에 출연할 음악부원은 지난번에 전조선현상음악대회에서 영예의입상자들로서 그들의 출연인만큼 인기가 비등하여지금부터 당일의 성황을 예상하고 손곱아가며 기다리는 중이라한다

四百餘戶貧民의 戶稅金을代納
咸平郡有志의美擧

【咸平】함평군에서 년년히 나려가는것은 빈민뿐인데 년래의수해와한재는 서상가상으로 그들의 생활은 몹롤인격의 참상이라는데 이를 목견한 면내특지(篤志)들은 서로의론하야 빈민들의 호세를 대납하엿다는바 일반은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代納金額	納稅人員	住所	納稅篤志者氏名
圓 錢	人	咸平郡	
[illegible]	[illegible]	大洞面	李康翰
[illegible]	[illegible]	新光面	金榮燮
[illegible]	[illegible]	孫佛面	朴秉學
		同	李熙俊
[illegible]	[illegible]	同	李東範
		同	金在乙
		同	金西午
		同	金稅允
		同	盧慶鎭
[illegible]	[illegible]	海保面	鄭東民
		同	服部逸四郎
[illegible]	[illegible]	同	林士明
[illegible]	[illegible]	同	尹大成
[illegible]	[illegible]	同	李洪烈
[illegible]	[illegible]	同	金古斗
一五、〇〇	二〇	咸平面	金稅斗
一〇、〇〇	二〇	同	工本助松
一〇、〇〇	二〇	同	中尾惣七
一五、〇〇	一〇	同	秋吉登
一五、〇〇	一〇	同	神谷友五郎
一五、〇〇	一〇	同	牟盛祺
一五、〇〇	七	同	金基德
二、〇〇	四	同	欄完一

十八歲少年兩名協力 同伴돈뺏고打殺
懲役十五年을言渡

【晋州】십팔세소년으로 무서운 살인죄명하에 징역십오년의 판결을 바든 두소년이잇다 지난 이십이일 오전팔시반 진주법원 지청 제일호 법정에서 이등(伊藤)재판장으로부터 살인범 함양군 지곡면 신복리(咸陽郡池谷面新福里) 리성숙(李性淑)(一八)과 동군 안의면 황곡리(安義面黃谷里) 구세원(具世元)(一八)량명에게 지난번 하촌(下村)검사의 무긔징역 구형한것을 각각 징역십오년의 판결언도를 하엿다는바 범죄사실은 작년십일월 이십일일 동리뒤산에 나무하려가는 길에 그곳 로모(盧某)의 머슴 다귀석(朴貴碩)(一八)을 만나 그가 가지고잇는 현금 이십원을 발견하고 조귀석을 산중으로 끌고가서 둘이서 협력하야 돈이십원을 빼슨후 돌파봉으로서 따려 참혹하게죽인후 모래로덥허 매장해둔것이 범행후 오개월만에 발각되어 체포당한 것이라한다

鎭江山營開場

【新義州】만주팔경 제일위라는 안동현진강공원(鎭江公園)에는 금년에처음으로 『풀』을 설시하든중 지난 이십삼일 공사가 완료되여 이십오일 성대한 준공식을 거행하고 수영을 개시하얏다 수영장이 업는 신의주에서는 물을그리는 녀름을 당하야 이풀의개시로 수영자의 깃븐소식이 되엇다

卞均珉氏의特志

【寶城】보성군 웅치면장 변균민씨(寶城郡熊峙面長卞均珉氏)는 동면내에 거주하고잇는 빈민 이백사십구명의 금년도제일긔호세총액 일백오십원을 대납하엿다는데 면민들은 씨의특지에 칭송이 놉다한다

裡里地方에는 降雨量이治足

【裡里】긔보=리리지방에는 지난이십일일부터 비가 나리기시작하야 이십삼일까지 칠십오미리가 나리엇다는바 농작물에는 흡족하나 금년년사는 이달내지 상할가량감소되리라한다

水泳講習開催

【馬山】마산해수욕장 에서는 오는이십구일부터 팔월칠일까지 십일간 마산체육회수영부(馬山體育會水泳部)주최로 하관궁긔교(下關宮(?))씨를 강사로초빙하야 수영강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平澤支局 位置 京釜線平澤驛前
支局長 趙成河 右任支局長
支局長 柳一 右依願解任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解約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朔寧支局 支局長 金九鉉 右解任

謹告

全義支局 會計兼集金員 鄭鎬奎 右新任
牙山支局 記者 曺圭庠 寫眞班記者 吳丙洙 仙掌分局長 崔寬永 右新任
大川支局 總務兼記者 崔義淳 記者 劉東燦 右新任
新泰仁支局 記者 千成玉 右新任
扶安支局 總務兼記者 金哲周 右新任
順天支局 記者 白光海 右解任
光陽駐在集金員 趙岩宇 右新任

載寧支局 總務兼記者 金亨俊 右新任
安岳支局 大遠分局記者 李炳塔 右新任
豐川支局 駐在記者 金在量 同 高益均 同 許鍾 同 金泰勲 右新任
惠山支局 寫眞班記者 劉載昊 顧問 張元鳳 右新任
長湍支局 電話一八番 右開通
宜寧支局 上一里駐在記者 沈相秉 右解任
玉宗分局 總務兼記者 梁己生 右新任
晋州支局 記者 金洪錫 右依願解任
慈城支局 記者 金龍賢 右新任
法洞駐在記者 朴乃松 右解任
厚昌支局 寫眞班記者 李炳烈 顧問 李連泳 右新任
定州支局 記者 金晶燾 右依願解任
總務兼記者 金元模 右新任
楚山支局 電話七番 右開通
慶山支局 記者 黃河一 右新任
開原支局 移轉位置 開原附屬地金華街九 總務兼記者 白亨猷 右新任
總務兼記者 尹萬壽 右解任
江西支局 岐陽分局長 金炯臨 右新任
大同支局 寫眞班記者 崔炳學 右解任
長水院駐在記者 朴永林 右新任

長湍 全朝鮮個人庭球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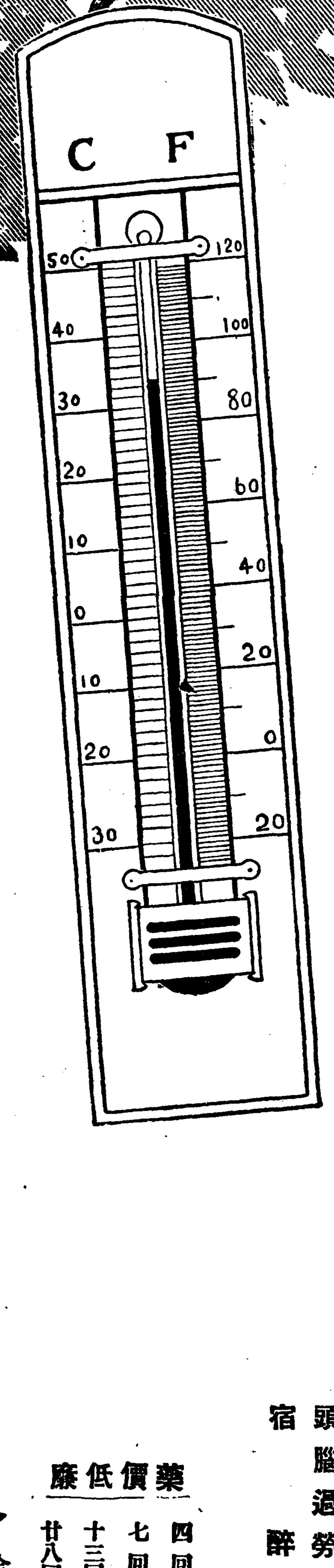
▲時日 八月十一日午前十時
▲場所 長湍庭球俱樂部코―트
◇主催 長湍庭球俱樂部
◇後援 朝鮮日報外二支局

水原 中朝鮮軟式野球大會

▲時日 八月三四兩日間
▲場所 華城學校球場
◇主催 水原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外三支局

廣州 第七回近畿蹴球大會

▲時日 七月廿七日
▲申請 廣州公普校
◇主催 京安修養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廣州支局



쑥쑥올나가는寒暖計!

가장進步된綜合的效果

最高標準의頭痛藥

ノーシン
노 ― 신

婦人들의偏頭痛 執務家의頭腦疲勞
한녀름은머리의受難期!

每日 흐릿하게 무거운머리로써 明朗하고 愉快한生活을 바라는것은 無理다 저廢人과갓튼 神經衰弱의最大原因은 疲勞된頭腦의 酷使에잇다 빨이ノーシン으로 解消하야서 언제나 明朗한氣分으로生活합시다。

眞正한頭痛藥의標準은?

❶ 効力이確實한것 (百萬의 自讚보다 要는實効如何)
❷ 効力이빨는것 (三、四分間에奏効한것이理想的)
❸ 남분作用업는것 (胃腸 其他에 害업서 安全한것)

ノーシン은 右의세가지를 基調로하야 創製한綜合的頭腦藥으로『頭痛을고치는作用』은勿論 同時에『頭腦의疲勞를恢復하고』朦朧한머리를分明하게하는 獨特한藥効를가지고잇다 이것이야말로 ノーシン이 다른頭痛藥보다도 斷然高級的인藥理的價値를가진 最高標準品이라고 하야모다賞讚을하고잇는所以이다。

藥物에常識이잇는분이면

藥物에常識이잇는분이면 數만흔 頭痛藥中에는 그配合藥의 性質에서일어나는무서운 胃腸障害를防止할目的인지 胃腸藥을添加하고 잇는듯하나多少間이라도 藥物學的 常識이잇는분들이라면 그러한藥을避하는것이 安全하다亦是純正한本格的頭痛藥을選擇하는것이當然한일일것이다

注意

近來 ノーシン의類似品이만이나왓스나、決코ノーシンㄴ그것대로는模倣할수는업다。도리혀이것은 ノーシンㄴ이全國的으로信用을博得하고잇는充分한證據에不過하다。

―主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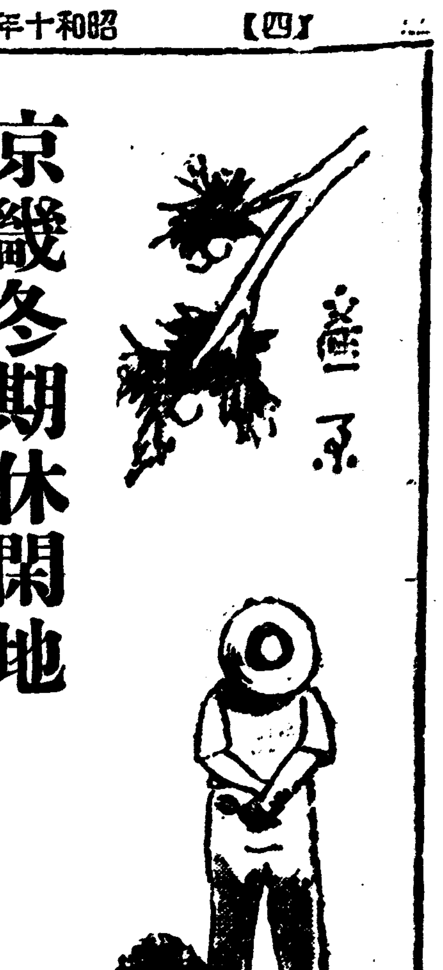
頭痛・偏頭痛
頭重・頭內朦朧
頭腦過勞・精神憂鬱
宿醉・船車멀미

藥價低廉

四回分……二十錢
七回分……三十錢
十三回分……五十錢
廿八回分……一圓

★全國의著名藥店、데파ー트藥品部에서販賣함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京畿冬期休閑地 全的利用을計畫
明年부터實施할터
大麥、小麥、벳치의栽培奬勵

京畿道內 田地面積은 十八萬千七百九十六町步에 達하는바그中 冬期休閑期를 利用하는 面積이 大麥 八萬九千四百五十六町 小麥 二萬五千二百五十六町 裸麥 一千二十三町 果樹 四百九十五町 桑 二千三百八十七町 人蔘 五百五十八町 蔬菜 二萬六千二百七十六町 「벳치」 二千五百五十六町 合計 十八萬三 七百九十六町이고 남어지 三萬四千七百六十九町步가 冬期에利用되지못하고 잇는터인데 道當局에서는 明年度新規事業으로 前記休閑地의 全的利用을 奬行할 計畫으로 그에對한 奬勵費도同時에計上하야 明年度부터 實施를 보리라고하는데 栽培品種은 大麥 小麥 「벳치」等 이라한다

忠南產돔보리、麥酒原料로適當
試釀結果成績이良好

忠南產돔보리」一四二號는 일즉이 朝鮮麥酒永登浦工場에서 試釀中이든바 最近 그成績이 良好한것을 알게되야 今年 同工場에서는 牙山、論山二郡에 對하야 千石以上의 買入申込을하엿다한다 그런데 同麥은 品質試驗의結果 釀造上有害한 蛋白質이 極少하고 精酒率이 比較的良好하야 「기린麥酒工場에서도 試釀을하고저 社員을 二郡農會에 派遣하야 協議를하엿다고한다 그리고 麥酒用麥은 「골든멜론」이 가장조흐나 收穫量이少하고 越冬이 困難한關係로 前記工場에서도 原料가問題되는터로 이번돔보리의 發見은 더욱重要視되는데 朝鮮內麥酒用原料는 忠南産만으로도 供給이充分하리라고한다

龜城地方養蠶 今年은好成績

【龜城】農家의 唯一한 副業이 되여잇는 養蠶은 近來 繭價의 暴落으로 斯業의 退步를 보이드니 今年에는 價格도 昂騰하여 農家에 潤澤을 주게되엿다 龜城도 養蠶의 適地로 自來로 그 名産의 일홈을 떨치고 잇는바 今年에 와서는 特히 氣候도 順調하엿고 모든 調子가 養蠶에 가장 適合한 關係로 昨年의四倍에 該當하는大生産額으로 販賣數量도 實로 八千餘貫을 突破하엿다. 價額도 昨年의四倍인 一萬八千八百十圓八十五錢이란 巨額인바 極度로 疲弊된農村에 이巨額의 金錢이 散布되여 農村經濟狀을 潤澤케하엿다 이價額을 龜城의 全農家에配當해보면 一戶當約二圓의平均收入이며 養蠶家에 配當하면 每戶 十圓以上의 收入이되엿이다 特히 全郡生産額의 四分之一을占領하고잇는 東山面으로 品質에잇서 養蠶家數에잇서斷然龜城郡의 首位를 占領하고 今年은 一戶平均 十圓以上의 收入을 보앗다고 한다. 今年의 龜城養蠶界는 자못 自擲할만한 飛躍的好績이라 할수잇스며 斯界에 多大한 企待를 가지고 남음이잇다할수잇다.

上半期釜山港貿易 一億五千萬圓을突破
比前年一割五分强의躍進

【釜山】近年 朝鮮內의 物資需給이 旺盛하야 海外貿易이 劃期的發展을 示하고잇는데 特히 朝鮮第一의 呑吐港인 釜山港의 貿易은 飛躍的으로 進展하고잇다 그런데 昨年秋季 南洋航路船釜山寄港及 今年四月紐育航路船釜山寄港開設로 一層追軍를 加하야 昭和十年上半期釜山港貿易狀況은 釜山稅關調査에 依하면 輸移出六千四十六萬九千三百八十七圓 輸移入九千七百八十三萬九千三百五十一圓 總計一億五千八百三十萬八千七百三十八圓을 突破하얏다한다 昭和九年 上半期의 貿易額一億二千五百八十九萬八千九百六十二圓에 比하면 三千二百四十萬九千七百七十六圓의 增加로 一割五分强의 躍進이라 한다 이것을 外國及日本內地別로 보면 다음과 갓다 한다

▲外國貿易

輸出	二、五〇三、九五三圓
輸入	二、六一六、八八四
合計	五、一二〇、八三七

▲日本內地貿易

移出	五七、九六五、四三四圓
移入	九五、二二二、四六七
合計	一五三、一八七、九〇一

連絡運輸會議
十月上旬奉天에서開催

【奉天】日本內地朝鮮滿洲支那間 連絡運輸의 圓滑向上을 目標로 每年一回式開催하는 連絡運輸會議는 來十月上旬頃 鐵道省朝鮮 支那兩鐵道局 滿鐵鐵道部 總局 北朝鮮及 [illegible] 中間船會社 日本國際觀光局의 各關係者가 奉天에 會合하야 第十一回의 會議를 開催하기로 되엿다한다

鎭南浦와黃州 苹果統制具體化
近日關係者가海州에會合

【平壤】黃州와鎭南浦를 中心으로한 西朝鮮苹果의 統一은 西朝鮮苹果發展上 緊要問題로서黃州에잇서 統一機關인 産業組合의 設立이 實現되지안어 只今까지 밀려오든바 黃州의 産業組合이 맛츰내 成立을 보게되여 將來産業組合을 通하여 兩地의 苹果統制는 充分히 可能性이 잇서 각方面에서 만흔期待를 가지고잇는바 兩産業組合當事者는 近日海州에서 會合하여 統制問題에 對한 具體的協議가 잇스리라한다

東北農村에 毛皮獸副業奬勵

【東京電話聯合】東北農村의更生을爲하야 東北振興調査局에서는 夏休도하지안코 調査를 進行中이라는바 今後寒冷地帶인 同地方에도 農村副業으로 狸、鼬等의毛皮獸의 養殖을하기로 二十三日第二特別委員會에서 狸、鼬의國立試驗場을 創設하는데 意見의一致를 보앗다한다 元來狸는野鼠現等의 害獸를 防止하는點에서 捕獲을禁止하고 保護하든터인데 米國方面의 右毛皮에對한需要는 旺盛하야 日本으로부터 冬期出皮의 量이漸增하는데供給이 不足되는此際에 同地에적어도一、二個所의 國立試驗場을新設하야 大大的으로人工殖을 하야 農會에 對하야種殖의 配給을하려고 計畫中이라는데 農林局과도 協議하야 急速히 實現을 보리라고한다

今年輸入緬羊 各道의配當決定
總數一千二百十三頭

昭和十年度의 輸入緬羊及東拓의 各道配給緬羊은 希望數二千四百八十頭에 對하야 配給緬羊豫定數는 一千二百十三頭로 總督府에서는 大體左와 如히配當配給할 意向이라한다

▲咸南道、希望數 五百頭 (配當數二百五十四頭)
▲咸北道、希望數四百七十頭 (配當數二百五十頭)
合計 一、二一三頭
▲黃海道、希望數 三百頭 (配當數七十頭)
▲平南道、希望數 四百五十頭 (配當數二百十二頭)
▲平北道、希望數 四百頭 (配當數六十一頭)
▲江原道、希望數 四百頭 (配當數六十一頭)

日石의販賣權을 朝石이繼承

朝鮮石油에서는 來秋 營業開始와 同時에 日本石油의 朝鮮內營業權을 無償으로 讓受하기로 決定되엇다는데 그結果 日石京城支店從業員은 日石의 許可範圍內에서 朝石이 引繼한다고하며 朝鮮內의 日石諸財産 (主로 貯油탕크)은 時價로 讓受한다고한다

六、七月鑛區出願 漸減傾向
鑛區의選擇時代出現

最近朝鮮의 鑛業界는 探鑛에서 産鑛으로 漸次 推移되고잇는바 從來出願만하면 一攫千金을 [illegible]수잇다는 夢想도이제와서는 文字그대로 夢想임을 알게된所以인지 차츰出願件數가 減少되고 잇다 六月中出願件數를보면 七百二十件으로 前年同期 七百四十四件에 比하야 十六件의 減少、七月一日부터 二十日까지는 五百十四件으로 前年同期 七百四十三件에 比하야 亦是減少될 模樣인데 이에 對하야 鑛山當局者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例年六、七月은 氣節關係로 出願件數가 減少되는 것이 常例이나 前年에 比하야 減少되는 傾向에잇슴은 아마出願者가 從來와 가티 出願第一主義를 버리고 鑛區選擇에留意하기 때문이라고 推測된다 云云

闡明希望 總督府態度
◇須藤鮮航會幹事談

鮮航同盟會本部로부터 朝鮮內各支部實情視察을 爲하야入京中인 幹事、辰馬須藤氏는 二十四日午前에 總督府關係各局을訪問하고 鮮航同盟會는 今日까지四月交涉決裂의際 總督府의 注意에 依하야 一切의 策動을 避하고總督府의 注意대로 自重하야와잇는바 當局 總督府로부터 우리가듣은바에對하야 總督府의其後態度가 曖昧한 點이잇合으로 尼崎汽船도總督府에不信을 懷하고脫退하고이에따라 各加盟會社間에서도 總督府의態度에 不滿을 가진이가 잇서 今後의 推移如何에 依하야는 一般의 想像도 不許하는 事態가 이러나게될런지도 모르는바 이責任은 總督府에서 질것이다 라고 言明하고 鮮航同盟會의 內情에 對하야 具申한후 二十五日午後三時發醫阪하야 二十八日大阪本部에서 朝鮮內事情의 報告를 兼하야 評議員會를 開催하고 今後의 方針에 對하야重大決意를 하기로 되엿다

鰮油對策
滿期앞두고協議
三湖鰮油業者組合定總에서

【三湖】咸南三湖鰮油肥製造業者組合에서는 지난二十三日 第四回定期大會를 開催하고 昭和十一年五月 十一日이 三菱及合同油脂와 生産者와의 一手買賣契約이 滿期임으로 그에대한 重大한 協議가잇슨후 다음과가튼 決議와 任員選擧가 잇섯다한다

▲任員
▲組合長 盧貞鎬 ▲常任理事 金炳衛

▲決議
一、昭和十一年五月十日 一手買賣契約이 滿期임으로 生産者들은 一致的으로 意思를 統一하야 臨機對策을 樹立할것

京畿道一帶의 洪水害莫大
道農務課調査內容

南朝鮮全羅道는 降雨不足으로 아직移秧을하지못한面積이相當히만허서農家의 不安이 적지안은터인데 京畿道一帶는 旱魃갓해雪上加霜으로 洪水까지 나게되야 農作物의 被害가 莫大하다고한다 今般 洪水에對하야 京畿道農務課에서 調査한데依하면 沈水面積=富平水利組合管內에 四千町步와 東水利組合管內에 三百町步臨津水利組合管內七十町步 高陽郡 二千町步 其他堤防破壞와楊州郡의 被害莫大하다고한다 그리고 纛島의 沈水田畓은 田이 六百十一町步畓이 八十七町步로 田의 大部分은 胡瓜참외 白菜 무等을심엇는데 거의 全滅狀態이어서 再播種을 하지안으면 收穫皆無가 되리라고한다

鰮油肥問題
過去와現在及將來 (6)
朴炯壽

3、共販組合解消後生産者의得失

三菱合同設立直後 生産者들을 救濟할 目的으로서 그들의 二重的負擔을 輕減식히기 爲하야 共販組合을 解體하엿다고 關係當局은 聲明하엿든것이다 果然그러하다 얼른생각하면 販賣組合을 解消하엿스니 共販組合이 正常的으로 受得하던 累萬圓의 手數料와 또는 그 人件費의 多額及 其他費用의 全部가 扶殺되어 生産者들이 年幹十萬圓巨額을 利得보게되엿다고 누구나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그 實際를 본다면 共販組合이 바더오던 多額의 手數料는 三菱과 合同油脂가取得하게되엿고 또한 人件費에 對하여서도 共販組合解消와 同時에 그重要멤버ㅡ는 大槪가 月的數百圓俸給으로 水産組合名譽理事니 무엇이니 그러한것으로轉身存續하고잇는것이다 마치 이 機構形狀이 在前의홉을때면 左便에붓친것과 恰似하다

또한 놀낼만한 事實이 最近에와서 發見되엿스니 그것은共販組合이 解消되는때 共販組合의 文書一切를 모다 水産組合이 引受하엿다는것이다 이 文書란무엇인가 共販組合當局者는 모다 緣故買受者인 同時에 鰮油肥工場 貸付業者이기때문에 舊債未拂額根據와 手形等屬이다 이 文書中에는 失效한 手形도만코 또한 工場이不況으로서 破滅되는 時節에 貸付者와 債務者間에 互相責任지야될 書類도 잇스며 恐慌時節에 生産者들이 借用한 金額을 可及的 報償하고도 未畢로 淸算치못한 關係로 帳簿에 記錄치못한것이 大部分이엿다

그뿐아니라 그文書中에는 回轉에同額을 加한 利息 關係도 만흔것이다 一律的으로 말한다면 좀지나치는 말가트나 半休紙나 空文에서 지나지못한것이다 다시말하면 債權者가 밧지안허도 원통할것이업겟고 또한 債務者가 물지안허도 不義라고할만한 文書가 아니라는말이다 이러한 書類가 共販組合이 업서지는 反面에 다시 蘇生하야 水産組合의 손에들거서 生産者인 生産者로 부터 文書그대로 落失되업시回收하게되엿다 이事實을當業者들이 임이 아럿다면 큰 紛爭을 惹起하엿슬것이나 그 回收方法이 極히巧妙하야 當業者 自身이 내고잇스면서도 自己들이내는 金額이 如何한 方途로 支出되는지 도모지 알지못하고잇섯든것이다

그 支給되는 經路를 말한다면 假令 今月 油粕價格이 油一鑵에 三圓이고 粕十貫에 五圓으로 三菱及合同油脂와 生産者의 代表인 水産組合과의間에 決定을 지엇다하면 公設價格은 油一鑵에 二圓八十錢 (每鑵二十錢控除) 粕十貫에 三圓七十錢 (每粕十貫三十錢控除)으로하고 製品을 買賣하야 油每鑵二十錢과 粕十貫三十錢을 秘密裏에 控除하야 共販關係者에게 當業者의負債條로 報償한다는것이다 이런形式을 取하는데야 生産者들이 아모리 恰悧하고 透明한들 엇지서이 演劇을 알수잇스라 如上의 事實을 綜合한다면 共販解消以前보다 解消以後에 生産者에게 及하는 損失이 오히려 莫大하다고 할것이다

四、基本契約의矛盾性과當業者의現狀

A、基本契約은當業者의鎖鑰

總督府當局이 産業合理化의精神을 基調로 重要生産物을 生産과 販賣 兩方面으로 統制하야 國家經濟의 基礎를 確保하려고 함은當然하다할것이다元來統制의 目的이 몬저 生産者의到益을確保하는 同時에 國家産業의 多角的 分散的 非組織狀態를 改革하야 組織的이고統一的인 産業形態를 만드러 人爲的作用으로 生하는 非勞力的損失을 一掃하야 合理化한 産業組織을 構成함에 잇슴은 贅言을 不要하는바이나 販賣統制에 잇서서는 多種多樣의 不合理한販賣方法을 統一하야 一定한 規定下에 行하며 可及的 當業者의 利益을 圖謀하여야 할터인데 朝鮮鰮油肥販賣統制案을 본다면 그根本趣旨에 背馳되는 感이 不無하다 一手買受契約을 締結하고 指定하야 一手買受者를 指定人以外에는 絶對買受를 容許치안케되엿으니 이것은 生産者의利益을 保障함도아니요 不合理한 販賣方法을 合理化함도 아니다

總督府當局은 重要産業統制法에 依하야 年産額二千三百萬圓에達하는 鰮油肥統制販賣를 鞏固히 하기爲하야 몬저 日本內地의 代表的財閥인 三菱商事와 또한日本油商界의 大王 合同油脂會社를 招請하야 總督府水産會館에서 朝鮮鰮油肥一手買賣假協定을 締結하엿든것이다 그러든後 그해(昭和六年)五月二十日 五道 (咸南、咸北、江原、慶南、慶北) 鰮油肥生産者인 當業者代表를 招集하야노코 三菱、合同當事者와 生産者間에滿五個年間 効力을 發生하고 一手買賣契約을 締結케하엿스니 이것이 問題의 基本契約이엿다 그리하야 基本契約에 準據하야 每年 各道水産組合에서 買受者와 當業者間에 買賣에對한 特別契約을 締結하야 一手買賣를 實現하여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基本契約은 買受者에게는 有利한 反面에 當業者에게는 不利하엿다 이 不利한 鎖鑰에 걸닌 當業者들은 五個年間 벙어리시 이에어매이게되엿다 이제 基本契約의 重要部分만을 記述하면 다음과갓다

▲基本契約書

甲은 五道水産組合聯合代表
乙은 三菱商事株式會社
同 合同油脂株式會社

甲乙間에 左와如히 契約을 協定함

一、數量의標準
1、油二百萬鑵、粕六十萬俵 (昭和六年度)
2、特別한 事情이 有한時에는 雙方이 協定한후 增減을 要함

二、價格의標準
1、生産季節은 左의 五期에 分하야 受渡를 行함
第一期 四月、五月、六月
第二期 七月、八月
第三期 九月、十月
第四期 十一月、十二月
第五期 一月、二月、三月
2、各受渡期의 價格及豫定數量은其期의前月中에 協定함
3、價格決定의 標準
(가) 油에對하여는 二個月의 平均市勢를 基準으로 하고 압프로 二個月의事情을 考慮하며 더욱 原油의 輸出 硬油의 輸出 日本內地硬化油及 魚油의 價格等을 參酌하야決定함
(나) 鰮粕에對하여는 前年同期의 平均市勢를 基準으로하고 압으로 二個月의 事情을 考慮하여 더욱他有機質肥料(大豆粕 棉粕 日本內地鰮粕 菜種粕等)의 價格을 參酌하야決定함
4、價格은FOB(本船乘渡)[illegible]함

三、右契約期間은 滿五個年으로하고 各當事者間에 特別한反對가업는限 다시五個年間을繼次繼續할것으로함

昭和六年五月二十日
甲 印
乙 印

商品取引便覽 ⑮

石工品

▲生産高
◇製造戶數=七四八戶
◇生産金額=二〇五、三六二圓
▲調査數
調査戶數=九戶
◇生産販賣額=六三、八〇四圓
▲出廻期=通年、石粉은自九月至翌年五月
▲包裝荷造
◇硯、水晶等=個個로조히에싸서 函에넛코 適當大의木箱子에넛는다
◇石盤=二十枚를一括로하야짚으로산다
◇石粉=百四十斤을叭에넛코새기로묵는다
▲取引經路
◇生産者=小賣商=消費者
◇生産者=消費地卸賣商=小賣商=消費者
◇生産者=消費者
▲主要한販路=朝鮮內各地及日本內地、石粉은朝鮮內各地
▲取引方法=見本에依한現金取引이만코나 相對方의信用에依하야委托하는境遇가잇다 石粉은現金取引을主로하나
▲製造方法=原石을까가마에굽고加工한다 石粉은 叩解機로 細碎하야채로처서 精選한다
▲原料의 種類及産地
◇石盤=原石(靑石)朝鮮産
◇石粉=生産地附近의白石

그他의工業品

▲出廻期
마닐라릅프=自九月至翌年五月
▲包裝荷造=하도론紙로싸고 고평산으로산다
▲取引經路=마닐나릅프
◇生産者=各消費者
◇生産者=地方販賣店=各消費者
▲主要한販路=마닐라릅프——乾鮮內及滿洲
▲取引方法=見本에依하야 手形取引을 主로하고 現金取引은 적다
▲製造方法=原料麻를 부려一카機로解하야 纖維가가즈런한纖를 抓紡機 그다음에 精紡機 紡絲한後 仕上機로 릅프를만든다
▲原料의種類及産地=主로 比律賓及스마트라産의 마닐라麻를 使用한다

農産品篇

製綿

▲生産高
◇製造戶數=五二戶
◇生産金額=[illegible]〇七四、一二八圓
▲調査數
◇調査戶數=九戶
◇生産販賣額=[illegible]五六〇圓
▲出廻期=自十月至翌年三月
▲包裝荷造=麻布로 싸고 繩縛를 하는데 二百斤을 넛는다 荷造費約一圓
▲取引經路
◇生産者=消費者
◇生産者=問屋=小賣業者
◇生産者=問屋=消費者
▲主要한販路=朝鮮內及大阪
▲取引方法=委託販賣에依하는일이잇다 또 發荷에際하야 荷爲替付로하고 期限은 積出日부터 三十日로하는일이잇다 現金取引에 依하는일도잇다
▲製造方法=實棉을 繰綿機로棉實을除하고 繰綿한다
▲原料의種類及産地=朝鮮産實棉을使用한다 全鮮南北道産

苹果 梨及그他의果實

▲生産高
生産金額=二、一三三八、六四〇圓
梨=三、八九六、七六二圓
▲調査數
◇調査戶數=九六戶
◇生産販賣金額=一、四六八、一九四圓
▲出廻期=自九月至翌年一月
◇梨=自九月至翌年二月
◇桃=自七月至八月
◇葡萄=自九月至十月
▲包裝荷造
◇苹果=各히조히로싸서箱子에넛는데 三貫入、三貫五百匁入、四貫入의三種으로 木箱子에넛는다
◇梨=個個를 조히로싸서 三貫五百匁入木箱子에넛는다
◇桃=個個를 조히로싸서 箱子에넛는다 荷造費約五十錢
◇葡萄=五百匁乃至一貫을 籾殼과함께箱子에넛는다
▲取引經路
◇生産者=地方仲買人=小賣人=消費者
◇生産者=地方仲買人=小賣人=消費者
◇生産者=組合=問屋=仲買人=小賣人=消費者
◇生産者=組合=問屋市場=仲買人=小賣人=消費者
▲主要한販路=朝鮮內各地、日本內地、滿洲、中華民國、露領
▲取引方法
◇苹果=現物에對하야 相對賣買에依하야 現金取引을 主로하고 大邱、市場、問屋等의 取引에 잇서서는 委託販賣로하나 此境遇 最低價格을 指定하는 일이만타
◇梨=現品에對하야 現金取引을主로하나 大邱、問屋과의 取引은 委託이 大部分이다 此境遇 最低價格을 示하는일이잇다
◇桃、葡萄는 現品에付하야 現金取引을 主로하나 大邱은是히 市場問屋에 委託하는일이 適이다

副業産品時勢週報
朝鮮副業協會調査

京城 七月廿三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고구마	一貫	五〇—四〇
토란	同	三、〇〇—一、〇〇
馬鈴薯 白	同	一四—一〇
同 赤	同	一〇—〇七
人蔘	同	三五—三〇
支那胡瓜	百個	一、五〇—八〇
朝鮮胡瓜	同	三〇—二〇
金眞瓜	同	三、〇〇—一、五〇
白瓜	同	二、五〇—一、〇〇
수박	一貫	三〇—二〇
茄子	百個	四〇—三〇
일년감	一貫	一〇—〇八
시금치	同	—
南瓜	同	一三—一〇
靑薇	十把	一〇—〇七
쑥갓	同	三五—二五
미나리	十把	—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자라	一貫	七、〇〇—三、五〇
붕어	同	三、五〇—二、〇〇
잉어	同	三、〇〇—二、〇〇
미꾸리	同	三、〇〇—一、七〇
가물치	同	三、〇〇—一、五〇
메기	同	五〇—四〇
뱀장어	同	六、五〇—三、〇〇
蜆貝	一升	一〇—〇七

◇購買品

品名	單位	價格
豆粕	一〇貫	三、五〇—
成鷄用配合飼料	五斗	三、三〇—
育雛用	同	四、四〇—
中雛用	同	四、二〇—
麩	百斤	三、三五—
玉蜀黍碎	九〇斤	—
同 中割	同	—
同 粉	同	—
高粱碎	百斤	—
同 粉	九〇斤	—
雛虫用粉	二폰드	三六—
魚粉メ粕	十貫	三、三五—
糠	八五斤	一、五〇—一、〇〇
蠣殼	百二十斤	—

◇養鷄用鐵網

品名	單位	價格
四尺幅 二寸目	百尺	一、三五
四尺幅 一寸半目	同	一、七〇
四尺幅 一寸目	同	三、三五
三尺幅 二寸目	同	一、一五
三尺幅 一寸半目	同	一、四〇
三尺幅 一寸目	同	一、六〇
三尺幅 五分目	同	六、五〇
靑金網 一分目	三尺	八、〇〇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生鷄	百匁	三一—二五
生豚	一貫	一、〇五—八五
生兎	同	三〇—二五
鷄卵	一貫	一、九〇—一、七〇
同	百個	—
四季鳥卵	同	三、〇〇—二、五〇
鶉卵	同	四、五〇—三、五〇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蜂蜜	一瓶	一八、〇〇—一三、〇〇
麥稈眞田	一反	一六—一三—一〇
經木眞田	同	二一—一〇—〇九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苹果 祝 新三貫		三、五〇—一、五〇
同 紅魁	同	—
同 紅玉	同	—
梨 早生赤	三貫五百匁	—
同 今村秋	同	—
同 晩三吉	同	—
葡萄	一貫	九、〇〇—六、〇〇
桃	同	四、〇〇—二、五〇
栗	一斗	三、五〇—二、五〇
잣	一石	五〇、〇〇—四五、〇〇
실백	一斗	一〇、〇〇—
胡桃	一石	三〇、〇〇—二五、〇〇
銀杏	百斤	一八、〇〇—一六、〇〇
고추 日本	百斤	三一、〇〇—一八、〇〇
고추가루	同	二七、〇〇—二五、〇〇
실고추	同	五〇、〇〇—四〇、〇〇
大棗 中國産	百斤	二〇、〇〇—
椎茸 咸南	同	八〇—七〇
松茸	百匁	三、〇〇—二、五〇
乾蕨根	一斗	六、〇〇—五、〇〇
마늘	百個	一、〇〇—八〇
同 小	同	七〇—六〇
生薑 大	同	一、三〇—一、〇〇
蕨根	一貫	一、〇〇—八〇
枸杞	一貫	二、〇〇—一、八〇
薄荷	同	三、〇〇—二、五〇
漆	同	一八、〇〇—一七、〇〇
椎茸	同	三、五〇—三、〇〇
胡麻油	一斗	八、〇〇—七、五〇
生落花生	百斤	一〇、〇〇—九、〇〇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封度	一五、〇〇
同 三吋以上	同	一二、〇〇
同 二吋半以上	同	八、〇〇
同 二吋以上	同	六、五〇
同 一吋半以上	同	四、五〇
同 梳毛	同	六、〇〇—四、〇〇
屑毛	同	—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一八七九	金銀鑛	咸南長津郡新南面	七月五日	長津郡新南面代表者 林在苑 同中南面 文淑女 鄭瀞周
一一八八一	同	平北寧邊郡加別面	同 六日	同 林在瀷
一一八八二	黑鉛	咸北城津郡鶴西面	同	水原郡水原邑代表者 李吉榮 京城府孝子洞 李汶柱 寧邊郡加別面 金炳寬
一一八八三	金銀鉛鑛	忠北永同郡梅谷面	同	平康郡平康面代表者 徐明勳 同 李德順
一一八八四	金銀鑛	同上村面、梅谷面	同	京城府旭町 桂田芳馬 福岡縣遠賀郡水卷村 三好孝宗
一一八八五	金銀鉛鑛	慶北英陽郡首比面	八日	京城府水樂町 中川湊
一一八八六	金銀銅鑛	同靑松郡安德面	同	大邱府元町 河喜俊
一一八八七	鐵鑛	平南大同郡栗里面	同	平壤府隆祥里 金玉鄕
一一八八八	螢石	黃海瓮津郡下瓢面	同	大阪市東區 住友合資會社
一一八八九	鐵鑛	咸北城津郡鶴西面	同	東京市世田谷區 關島吉
一一八九〇	金銀銅鉛鑛	慶北義城郡玉山面	同	迎日郡浦項邑 鄭華基
一一八九一	金銀鑛	慶南山淸郡生草面	同	京城府昌信洞代表者 金漢奎 山淸郡生草面 金漢琪
一一八九二	金銀鉛鑛	咸南長津郡西閑面	同	元山府壽町代表者 重岡久吉 京城府元町 川瀨修平
一一八九三	砂金	慶南山淸郡山淸面、今西面、梧釜面、生草面	同 九日	晉州郡晉州邑代表者 鄭寅啓 同幸町 鄭寅煥 山淸郡新等面 權德鳳
一一八九四	水鉛鑛	全北茂朱郡安城面、長水郡溪北面	同	京城府松月洞代表者 崔在相 茂朱面 朴陽稷 京城府橋南洞 全圭喆
一一八九五	金銀鑛黑鉛	咸南長津郡北里	同	京城府鍾成町代表者 大野幸員 同實勸洞 尹治衡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九八一四	忠南扶餘郡忠化面、林川面、良化面	九月九日	全州郡全州邑代表者 久永麟一 富田理七 丸山俊一
一一八九三	慶南山淸郡山淸面、今西面、梧釜面、生草面	同	山淸郡山淸面代表者 梁武弘 晉州郡水谷面 河啓天
九七一三	同咸安郡航面	同十日	東京市京橋區 昭和鑛業株式會社
一一二三三	江原春川郡史北面、京畿加平郡北面	同	鳳山郡沙里院邑代表者 姜鎬俊 同 姜祖元植
六五四六	咸南安邊郡衛益面	同	安邊郡衛益面 姜興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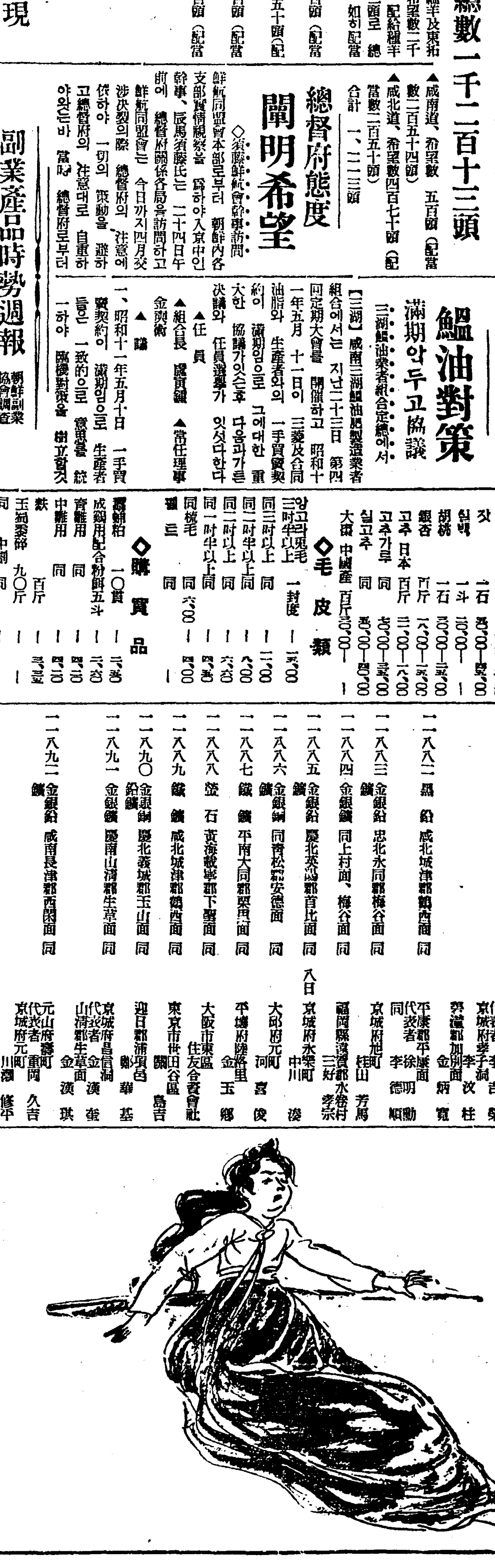
◇共同鑛業代表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八三九六	黃海遂安郡大千面、道所面	七月五日	代表者를高梨耕幣로改定
一〇六八八	同延岩面、道所面	同	同
六五六九	咸南端川郡水下面	同六日	代表者를金基德으로改定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九八六	平北朔州郡水豊面、昌城郡靑山面	七月五日	崔根庸任意脫退
一〇八七七	全南谷城郡梧谷面	同六日	金哲煥任意脫退
同	同	同	金鳳紋任意脫退
六五六九	咸南端川郡水下面	同	米山喜源太任意脫退

林巨正
火賊 (84)
洪碧初 作
安■柱 畫



청석골 (四의三三)

꺽정이가 발등을 벼락치듯열고 말을 몰아치로 내것는바람에 원씨는 놀라서 벌떡 닐어서고 상직할미와 아이년들과 뭉치는 일시에 머리를 틀려서 꺽정이를 바라보는데 정작 그녀편네만은 흘깟한번 안방편을 바라보며 곳 섯는원씨를 치어다보며

「기왕할것업시 종년은 오늘해안으루 들우보내주구 또 사내의 상업은 구습은 고치두룩하우」

하고 말하는품이 곳 분부나 신칙하는것과 달음이업섯다

「사내의 구습이라니」

꺽정이가 말끄를 잡아가지고 뇌까리니 녀편네는 시침을 뚝떼고 원씨더러

「아무에게나 함부로 욕하는것이 상업은 구습이지 무어요」

하고 말하는것으로 꺽정이에게 대꾸하얏다

「뭘보니 사내를조와하게 생겻구나 이리와 나하구 말하자」

꺽정이의 정말 상업은 구습이 끝을 도다서 녀편네는 를긔롭하고 원씨를 향하야

「보아하니 냥반의집딸가튼데 엇재 순 불상놈을 데리구사우」

하고 말하얏다 꺽정이가 마루로 뛰어나와서

「무어엇재 이년아 불상놈 그래 불상놈이니 엇절테냐」

꺽정이가 녀편네게로 갓가이 대들때 얼빠진사람가티 멍하니 기동에 기대어섯든 원씨가 아프로 꾸그리지는듯 꺽정이의 소매를 잡고 매달리엿다

「저리비켜」

「제발 손쉬엄 마세요」

원씨는 말소리가 여지 울라는사람가렷다 꺽정이가 한편손의 식지가락을 내뻐치고 흐름면서

「이년아 악가한말 한번다시해봐라」

하고 얼러대는데 녀편네는 딸전하고 본체도아니하얏다 꺽정이가 한걸음 아프로 나서서 녀편네의 저고리뒷고대와 머리뒤를 겸처잡고 마루우로 끌어올렷다

「아이구머니 이놈보게」

「이년 죽일년가트니」

「놔라 이놈아」

녀편네의 언진머리가 흘어저 나려와서 꺽정이가 고쳐 머리채를 잡앗다 녀편네가 꺽정이게 아들두고 엉거주춤 넘어서며 곳 눈결에 수염을 움켜지고 잡아당겻다 녀편네와 꺽정이는 고개를 마주 숙이고 엎씨는 말리라고 사이에 들어서 세사람이 한데 뭉치엇다 아이년들이 원씨에게

「아씨」

「아씨 이리 나오세요」

하고 소리들 질르고 흔 자치가 꺽정이더러

「나리마님 아씨 다치십니다」

하고 소리치고 또 상직할미가 꺽정이여페 와서

「나으리께서 참으십시요 거따위 망한녀던네가 세상에 이뒤 또잇겟습니까 봉변하신건 미친개에게 물렷다 잡구 참」

하고 짓거리엿다 꺽정이가 머리채를 노코 팔희복을 쥐어 손아귀에서 수염을 빼낸뒤에 한편억개를 툭 치니 녀편네는마루에 궁둥방아를 짓고 주저안젓다

「이년 내손이 한번 더가면너는죽는다」

「오냐 죽여라 내가 이망신을 당하구 살면 무어하겟느냐자 죽여라 내가 죽는걸 무서워할줄 아느냐 자어서죽여라」

하고 녀편네가 안저서 몽개몽개 아프로 나오는것을 꺽정이가 발끄트로 한번 거더차서 광하고 뒤로 나잣바지며곳 사지를 펴고 두눈을감고 꼼짝도 아니하얏다 원씨가 속에서부터 떨려나오는 목소리로

「아이구 큰일 낫서 저걸 엇더캐요」

하고 꺽정이를 처다보고 또

「할멈 좀가서 만저보아」

하고 상직할미를 돌아보앗다

「긔운이 막히게지 가서 좀보게」

꺽정이가 상직할미더러 말하야 상직할미가 녀편네게와서 손을 쥐어보고 몸을 만처보고 코미테 손을 대어보기까지한뒤에 동자치를 불러가지고 물이가러 손바닥을 부벼주엇다 얼마만에 녀편네는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쉬더니 바로 닐어안지라는것가티 몸을 요